





## 임노식

이달의 표지 작가



### 표지 작품

〈Workroom01〉

Oil on Canvas | 245×184.5cm | 2019



임노식은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에서 전문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9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3기 입주작가이고, 2020년 인천아트플랫폼 11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Pebble Skipping〉(통의동 보안여관, 2020), 〈Folded Time〉(합정지구, 2017), 〈안에서 본 풍경〉(OCI 미술관, 2016) 등 개인전을 열었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준비지원 RE:SEARCH〉 시각 분야 작가로 선정됐다.

자연에서 관찰한 인위적인 상황과 흔적에 관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계의 형태와 그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시작은 지극히 사적인 경험과 기억에 각인된 공간이지만 회화를 통해 사회구조에 내재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 소멸, 충돌하기를 반복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통해 교감하고 소통을 시도해 익숙함과 새로움을 찾으려 한다.

2016년 첫 개인전 〈안에서 본 풍경〉(OCI 미술관)으로 시작해 2017년 〈Folded Time〉(합정지구)과 최근 개최한 〈Pebble Skipping〉(보안여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꾀하며 회화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유년 시절을 보낸 공간인 목장과 축사를 그린 연작을 선보이며 사적인 경험·기억을 풍경으로 재현했고, 2017~2018년 작업에서는 풍경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명도나 배율을 조정하며 표현 자체를 실험한다는 점에서 전작과 차이를 뒀다. 어떠한 표현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한계 상황이나 공간 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2020년 열린 〈Pebble Skipping〉 전시는 일상에서 발견되는 이미지가 시각 프레임에 잔존하게 되는 ‘회화’의 구동 방식에 대한 전시다. 일련의 과정을 ‘눈에 담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에서 시작했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무엇이 유실물로 남겨지는지, 또한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계속 유지되는 풍경에 집중해 보고자 했다.

풍경(사물)의 재현과 관찰에서 더 나아가 공간 자체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되새기는 나의 작업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나이갈 수 있음을, 풍경이 곧 누군가의 삶이자 한 자아의 내면과 외면을 총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동시대 회화는 무엇을 재현할 수 있고 재현해 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brush〉**  
Oil on Canvas | 245×94cm | 2019



**〈Workroom04〉**  
Oil on Canvas | 72×90.5cm | 2019



**〈Canvas Roll〉**  
Oil on Canvas | 245×94cm | 2019



**〈Canvas03〉**  
Oil on Canvas | 245×94cm | 2019



# CONTENTS

2020 07 VOL. 161

##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중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객원 편집위원 김태희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임노식

## 테마 토크

청년예술인의 놀이터, 서울

## 06 칼럼

청년예술청 개관을 맞아 살펴본 서울시 청년예술정책의 궤적

## 08 리포트 1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 12 리포트 2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015 : 0(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 14 리포트 3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와 '서울청년센터 오랑'

## 사람과 사람

## 16 문화인

건축가 유현준

## 20 작가의 방

이승엽 교수·고안철 작가

## 22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의 파트너 기업 'GS SHOP'



©신촌문화발전소



## 26 서울 잘나

## 28 진실 혹은 대답

2025서울예술인플랜 수립 1차 토론회

## 이슈 & 토픽

## 34 쟁점

간송미술관 소장품 경매를 둘러싼 논란

## 36 화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2020년

## 공간, 공감

## 38 공간

아파트먼트 프란츠

## 40 공감 1

전통예술 <여우락 페스티벌>과 <미리 듣는 산조대전>

## 42 공감 2

전시 <사운드뮤지엄(SOUNDMUSEUM): 너의 감정과 기억>과  
<퓨처데이즈(Futuredays): 시간의 공간>

## 44 공감 3

책 <빌레뜨>와 <비타와 버지니아>



## SOUL OF SEOUL



##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20

여자라는 자연 속엔 무엇이 살까

## 48 김송희의 썰(說)

'<깡> 열풍'으로 본 미디어 흐름의 지각변동

## 50 류태형의 음악 정원

코로나19 시대에 꽃꽂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행보

##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아리 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

## WEBZINE+

## 56 웹진 [비유]

당신의 일

## 58 웹진 [연극in]

작당모의 <무릎을꿇었는데겨드랑이가따끔하여>

## 60 웹진 [춤:in]

김설진

## 62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68 편집 후기





## 청년예술인의 놀이터, 서울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이 개관한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영역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청년에게 열린 공간인 청년예술청은 활동의 물리적·관계적 기반이 될 만하기에 의미가 크다. 청년예술청이 동지를 둔 곳은 서울시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층으로, 공간의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이용 등 대부분의 과정을 청년들이 담당한다.

이번 테마토크에서는 청년예술청 개관을 계기로, 지금 서울의 청년예술을 떠받치는 토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청년예술정책의 궤적과 나아갈 방향을 들여다보고, 청년예술청 사용법과 대표 활동(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더불어 역시 서울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선배 공간'인 무중력지대와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찾아가봤다. 청년과 청년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긴 시간 고민한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2019 <서울청년예술단×강북구> 선정 단체 '페테라이팅' ©강북문화재단





SEOUL FOR  
YOUNG ARTIST



## 청년예술정책, 이제는 내용을 채울 때

청년예술청 개관을 맞아 살펴본 서울시 청년예술정책의 궤적

청년은 푸른 나이,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의학 기술과 건강술이 발전한 지금, 청년은 단지 젊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연합(UN)에서는 심지어 60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자고 말한다.

한편,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60세를 훌쩍 넘긴 분들이 청년회장을 맡고 있다.

청년은 푸른 나이나 젊은 세대가 아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대 혹은 인구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청년은 좀 다르다. 그들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을 말한다.

활동성이나 건강성이 아니라 '시작' '진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청년들에겐 해야 할 일이 많다.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취직 등 일자리를 갖는 문제, 다양한 도전과 실험 기회를 갖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문제 등 청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양하다.

특히 지금처럼 사회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취업의 기회가 막힌 현실에선 더 그렇다.

대물림된 가난이나 막힌 취업 문, 없는 도전 기회 앞에서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에 오늘날 정부에 청년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화된 정책 영역이다.

청년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 사회에 청년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IMF 외환위기 때다. 급속한 경제위기로 취업 길이 막히면서 청년은 가난과 궁핍의 대상이 됐다. 우석훈 교수의 《88만원 세대》는 그 우울한 자화상을 비춘다. 취업 길이 막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청년의 삶, 그들은 '88만원'으로 표상된 것이다.

그러나 청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다. 우리나라로 영향 범위가 제한됐던 IMF위기와 달리 국제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세계는 가장 심화된 불평등의 대상이자 위기의 주체로서 청년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 2013년 유럽연합이 제시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나 같은 해 미국이 제시한 청년경로(Pathways for Youth) 등이 그렇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심각해지는 청년 위기 앞에 서울시는 2013년 ‘청년허브’를 조성해 청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다.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청년수당’을 도입해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한 게 정책의 기본 취지다.

청년수당으로 자신감을 얻은 서울시는 2019년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한다. 청년 스스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 보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청년자치정부는 ‘설자리’와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을 기본 의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청년정책과 예술정책 사이 ‘청년예술정책’

‘청년예술정책’ 또한 서울시 청년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립, 자치의 기회를 준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예술인은 일반적인 청년이 고민하는 문제도 갖고 있고, 다른 문제도 갖고 있다. 이에 예술인의 관점에서 청년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 청년예술정책이다.

서울시에서 청년예술정책이 처음 이야기된 것은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에서다. 당시 서울시는 ‘예술플랜’이 아닌 ‘예술인플랜’으로 예술인의 삶을 둘러싼 생활과 창작, 노동, 성장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는데, 이때 중요한 대상으로 설정된 게 청년 예술인이었다. 청년예술인이란 일반적인 예술인과 달리 ‘이제 막 사회(예술시장)에 진입하는 예술인’으로서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 문제에서부터 일자리 문제, 창작 활동과 지원의 문제, 성장과 전환의 문제 등을 다루고자 했다. 곳곳에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해 예술가의 생활을 안정화하고자 했으며, 작가들이 공유하는 연습실이나 아틀리에 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어 신진 예술가를 중심

으로 한 지원 체계 변화와 공공 형태의 여러 예술 일자리의 창출, 국제교류 등 새로운 기회의 제공 등을 축으로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 ‘서울예술인플랜’이다.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청년예술청

2019년 들어 서울문화재단은 새로운 시도를 했다. 정책 대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주체로서 자신들에게 맞는 정책을 스스로 기획하도록 한 게 그것이다. 이에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수차례 논의한 끝에 2019년 11월 ‘청년예술인회의’를 탄생시켰다. 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 당사자 주체들이 모여 시정과 자신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이다. 청년예술인회의는 올해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은 SH공사가 충정로역 근처에 조성한 역세권 청년주택에 ‘청년예술청’을 개관한다. 청년예술청은 청년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청년예술인들이 놀며 창작을 구상하고,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는 공간이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예술청인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청년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와 거버넌스의 기반을 닦았다. 이제 청년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정책을 만들어갈 기반을 갖춘 것이다. 이제 이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이 기획되고,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청년들은 단지 대물림된 가난이나 불평등의 주체가 아니라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주체’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자로서 새로움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며 뭔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새로움의 주체로서 청년들이 우뚝 서길, 그럼으로써 우리의 예술을 더 건장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로 만들어가길 기도해 본다. 청년 예술인회의와 청년예술청은 분명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제 이 플랫폼에 청년들의 열기가 가득해지길 기대해 본다.

글 라도삼\_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연구



# 실험하고 성장하는 청년 공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서울문화재단의 신규 공간 청년예술청이 개관한다.

아직은 채워갈 것이 많은 미완의 공간이지만,

청년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연대하고, 실험하며,

실패의 과정까지 함께 존중하고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창작 실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다소 어색한 역세권 신축 공간 지하 2층

청년예술청의 주소지인 '서대문구 경기도로 26-26'을 검색하면 충청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나온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들이 으레 그렇듯, 청년예술청이라는 단독 건물을 상상하던 이들에게는 의외의 광경이다. 첫인상은 더도 덜도 아닌 딱 신축 아파트 상가 건물이다. 설명으로만 들으면 다소 어색하다. 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 세 들어 있는 듯한 청년예술청이라니.

하지만 청년예술청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 의외의 모습에 놀라게 된다. 근처 충청로역은 서울의 중심에서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역으로 이른바 '더블역세권'이다. 청년예술청은 그 충청로역(8번 출구)에서 도보로 1~2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소위 말해 초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이 비탈진 언덕에 위치해 지하 2층이지만 건물 입구에서 계단으로 반 층만 내려가면 바로 청년예술청에 도달한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

던 인테리어의 카페형 공유 오피스를 만나게 된다.

카페형 공유 오피스를 처음 접한 이들은 '호텔 로비' 같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한다. 이 공간의 디자인은 시각예술가이자 공간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희 작가(픽건설)가 맡았다. 그는 호텔 로비 같다는 첫인상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청년예술’ 공간이라고 하면 오래된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재료를 사용한 공간을 떠올리기 쉽다.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청년예술 공간도 태생적으로 미리 계획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고민했고, 번듯하고 매끈한 재료를 선택했다. 더욱 단단하고 잘 갖춰졌다는 인상이 들도록 디자인하다 보니 호텔 로비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곳이 청년예술인들이 당당하게 자기 성장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카페형 공유 오피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노트북 작업, 간단한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청년예술청 파트너'<sup>1</sup>에 가입하면 월 20잔 정도의 무료 음료가 제공된다.

## 새로운 가능성, '청년예술청\_컬렉티브 충청로'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당사자' 중심으로 펼치는 공간이다. 장르·나이·경력 등 경계 간의 충돌이 새로운 변칙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와 시행착오는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또 다른 동력으로 작동한다. 청년예술청은 새로운 예술적 실천과 실험이 생산되는 안전한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

## '청년예술청\_컬렉티브 충청로'가 지향하는 방향은?

-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기획·운영하는
-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지원이 우선인
- 시도의 과정과 의미를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 상상으로만 그쳤던 실험적 활동이 실제로 펼쳐지는
- 구분 없이 함께 연대하고 이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 새로운 예술적 실천과 실험이 생산되는 안전한 창작실험 플랫폼

## '청년예술청\_컬렉티브 충청로'가 만나기를 기대하는 이는?

행정 및 정책에서 규정하는 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나이·경력·장르 경계에서 유연한 태도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미래문화예술인, 예술활동에 관심 있는 향유자

<sup>1</sup> 청년예술청을 통해 공유와 공감과 성장을 함께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문화예술 종사자, 미래문화예술인,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향유자다. 파트너에 가입할 경우 수시 대관(회의실·연습실)은 대관 1시간 전까지도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며, 카페형 공유 오피스에서는 월 20잔의 음료가 제공된다. 청년예술청 운영 방향 및 목적에 동의한다면 설문 형태의 가입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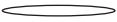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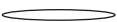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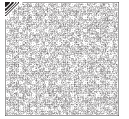
### 6개 공간과 편의성 높은 대관 시스템

청년예술청은 회의실 2개소, 연습실, 화이트룸(전시 공간), 그레이룸(다목적 공간), 미디어실(조성 예정)이 마련돼 있으며, 대관 방법은 수시대관과 기획대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수시대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회의실 2개소와 연습실이다. 청년예술청은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대관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당일 1시간 전에도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편리하고 반응성 높은 대관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 대관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데, 신규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직관성·반응성·편의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대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실1은 12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회의실2는 6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 각 회의실에는 프로젝터 또는 이동형 디스플레이 TV가 설치돼 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화이트룸(전시 공간)과 그레이룸(다목적 공간)은 기획대관으로 대관할 예정이며, 아직 대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그레이룸(다목적 공간)은 90여 평 규모로, 이름 그대로 그레이 색감의 흡음재로 전 공간을 구성한 박스형 공간이다. 전면에는 7.5×4.5m

- 1  청년예술청 카페형 공유 오피스의 모습
- 2  그레이룸(다목적 공간)의 모습
- 3  청년기획자 플랫폼 회의 모습





의 대형 LED 스크린이 자리하고 있으며 공연, 영상 상영회, 워크숍, 토론회 외에도 연습 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화이트룸(전시 공간)은 13평 정도의 전시실이다.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카페형 공유 오피스에서 전시장이 들어다보이는 쇼윈도 형태의 전시 공간이다. 그레이룸과 화이트룸에 대한 자세한 대관 방식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함께 만들고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청년예술청\_컬렉티브 충정로는 개관 준비 단계에서부터 앞으로의 모든 운영을 민간 파트너들과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예술청을 함께 만들어나갈 파트너들을 소개한다.

### 개관기획단

청년예술청 개관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예술인 협력체다. 디자인, 제작, 정책토론 등 예술 기반을 다지는 활동부터 공연·전시·퍼포먼스 등 창작 발표까지 개관 준비를 위해 청년예술청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한 결과와 내용을 청년예술청 개관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다.

### 공동운영단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해 ‘자발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청년예술청을 공동 운영하는 주체다. 공모 신청자 및 심사위원 상호 투표를 통해 총 6인의 공동운영단이 선정됐으며, 청년예술청 공간 운영 원칙을 논의해 결정하고,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기획형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다.

###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제도에서 규정한 ‘청년예술(인)’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2019년 11월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의 거버넌스 파트너다.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당사자의 언어로 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자 한다. 청년정책 관련 담론 형성을 위한 현장 인터뷰, 라운드테이블, 연구모임, 웹진과 함께 만들어진 담론들이 정책 제안을 위한 의제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청년예술 지원 관련 타 기관과의 모임, 청년정책 관련 자료 아카이빙 등을 진행한다.

### 청년기획자 플랫폼

장르와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적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시대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기획자의 활동을 포착하며, 상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청년기획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올해는 ‘기획자 플랫폼’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획자 커뮤니티 조성, 기획자의 진솔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기획자의 방, 넷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기반 프로그램을 실험한다.

정리 배소현\_청년예술청 매니저 사진 서울문화재단







2019 <서울청년예술단×동작구> 선정 청년예술인 성한철 프로젝트 <거리 위의 인간>

## 청년예술인- 자치구문화기관이 만드는 새로운 지평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015 : 0(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지난 5월 초까지 공모한 서울문화재단의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015 : 0(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이  
진행 중이다. 청년예술인들은 서울 내 15개 자치구 지역과 연계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청년예술인의 존재와 삶에 대해 지역 문화기관과 함께 고민하  
고 협업한 2019년 '지역형 청년예술단 <서울청년예술단×○○  
구>' 첫 사업이 지나고, 2020년에는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015 : 0(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이하 '015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과 청년예  
술인의 관계, 자치구 문화기관이 함께 만드는 등용문 역할에 집  
중하며, 15개 자치구 문화기관, 75명의 청년예술인, 그리고 5명  
의 청년예술인 워킹그룹<sup>1</sup>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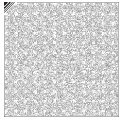
기관 및 예술인 대상 2중 공모를 거쳐 6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청년예술인들에게, 월별 활동비를 보장하는 사업 구조는 코로  
나19 기간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연령 외에 문턱 없이, 기초 예  
술 창작자부터 영화연출가·만화가·에세이스트·예술운동가·  
문화기획자까지 다양한 청년예술인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청년예술단,

그리고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시작

'015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서울청년예술  
단' 사업으로부터 청년·활동·활동비 개념을 공유하며, 2019년





19개 자치구 문화기관, 109명의 청년예술인과 함께 시작하게 됐다.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은 월 70만 원의 활동비와 청년예술인 콜렉티브 등으로 큰 인상을 남겼지만, 2020년부터는 핵심 지점을 전체 예술지원사업 체계 안으로 남기고 예산이 편입됐으며<sup>2</sup>, 현장에서는 '서울청년예술단'이 '015사업'으로 변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청년예술단'의 가치와 시도가, 한 축으로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전체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청년예술인 존재라는 다른 한 축으로는 '015사업'을 통해 지역 연계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sup>3</sup>

서울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서울 각 지역의 자율성과 사람(문화 주체)을 중심에 둔 사업을 운영했고<sup>4</sup>, 이를 통해 자치구 문화기관과 파트너십을 이루며 지역-예술인 관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울에는 수많은 청년예술인이 살고 활동하지만 각 지역사회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것<sup>5</sup>, 또한 경제적 자본(정주 가능한 주거 공간 등), 사회적 자본(연령 권위, 지역사회 연결망 등)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예술인의 작업과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용 역량과 인식 부족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새롭게 내디딜 지점이 있다고, 나이 기준의 '청년' 예술인 지역 연계 사업을 시도해 볼 가능성을 보게 됐다.

### 지역과 청년예술인의 만남:

#### 삶과 활동의 새로운 場으로서 지역을 기대하다

장르 예술 제도 내에서 수월성 중심의 창작지원사업과 달리, 예술인의 작업, 활동, 삶의 또 다른 영토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이 그 영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영토의 확장만이 아니라, 관계(의 면적·방향·강도)에 변화를 준다면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콘텐츠, 서비스의 용역·소비·활용 외에 예술인의 존재와 활동 자체가 가시화되고 관계가 횡적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장(場)을 '지역'에서 기대해 보고자 했다.

그렇기에 월 70만 원의 활동비는 지역 연계 활동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생계가 아닌 창작·작업·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 외에도, 지역 자본이 없는 청년예술인들이 새로운

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소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015사업'에서 자치구 문화기관(의 담당자)은 청년예술인의 파트너·동료이자 자산이 되고자 한다. 지원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 현장의 '동료'로서, 기획자이자 매개자로서 함께하는 경험이 청년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예산으로 분절되는 1년 단위의 사업이 아닌, 지역에서 삶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매개하고 75명 각각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서울문화재단의 단독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지점이다.

아직 조정 중인 대안적 사업이기에 아쉬운 점도 있다. 청년예술인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문화기관의 협력 및 지역 역량, 지역 예술 활동의 확장성(단순 연계가 아닌 새로운 작업 지평으로서의 지역) 면에서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이 참여 가능한 '015사업'은 기존 구조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단체 결성을 강조했던 '서울청년예술단'의 강점이 약화된 면이 있다.<sup>6</sup>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사업 취지를 각각의 콘셉트와 구조로 '신박하게' 녹여낸 지역별 사업<sup>7</sup> 후, 15개의 새로운 서울문화를, 새로운 장 속의 75명을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진환\_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                                                                             |                                                                      |
|-----------------------------------------------------------------------------|----------------------------------------------------------------------|
| 모집 대상                                                                       | 자치구별 5명, 총 75명의 청년예술인 개인 및 단체(39세 이하)                                |
| 활동 기간                                                                       | 2020년 6~12월(2021년 1월 성과공유회)                                          |
| 지원 내용                                                                       | 1인당 월 70만 원 활동비(7개월), 프로젝트 실행비(자치구별 총 1,500만 원), 맞춤형 성장 및 지역 매개 프로그램 |
| *15개 자치구 각각의 특색 있는 지원 내용, 사업 방향 및 2019년 아카이빙 북은 웹사이트(young15.or.kr)에서 확인 가능 |                                                                      |

- 1 2019년 활동한 109명 중 5명이 워킹그룹을 구성해 2020년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있다.
- 2 신진 예술인 관점은 나이가 아닌 예술인이 직접 자신의 경력 단계를 설정해 A트랙(신진)-B트랙(유망)-C트랙(중견) 구분하는 방식으로, 활동비 관점은 창작사례비와는 별개로 단체당 300만 원의 활동비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됐다.
- 3 이외에 청년예술인 관점의 핵심 사업은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 올해 개관 예정인 청년예술청이 있다.
- 4 'N개의 서울' 웹페이지 참조 [www.localtoseoul.or.kr](http://www.localtoseoul.or.kr)
- 5 청년의 비가시화, 청년 대상 매력 부족 등은 비단 지역문화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 등 통상적인 지역 사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 6 대신 자치구문화기관 담당자와 또 지역 활동가들을 동료로 삼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에서 지속적 관계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 7 청년예술인과의 1년 계획을 특색 있는 과정으로 촘촘히 짜놓은 지역들이 있다.



## 청년에게 활력을 불어넣다

###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와 '서울청년센터 오랑'

서울시 청년정책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년의 삶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로 나뉜다. 놀자리 영역에 속하는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와 '서울청년센터(Youth Center) 오랑'(이하 오랑)은 서울 권역별로 분포돼 있으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무중력지대와 오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휴관 중입니다.



### 무중력지대: 청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

무중력지대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언제든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이자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무중력지대라 이름 붙였다. 운영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서울시가 6개(대방동·양천·도봉·성북·서대문·강남), 자치구가 2개(광진구·영등포)를 운영해 현재 8개가 있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데, 덕분에 무중력지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도 다양하다. 무중력지대의 소식과 정보는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통해 공간별 소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멤버십(공간별 상이)에 가입하면 더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무중력지대 도봉

도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무중력지대 도봉'은 2018년 6월 개관한 네 번째 무중력지대이다.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1번 출구를 나와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주황색 컨테이너 박스란 특이한 외관 덕분이기도 하다. 무중력지대 도봉은 '청년들의 손때가 더해가는 동네 놀이터'란 수식어를 달고, 청년 역량 강화, 청년 생태계 조성,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정거장'과 '사심가득클래스'를 꼽을 수 있다. 청년정거장은 청년이 자신의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과 활동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8개 팀이 선정돼 도예·음악·문화기획 등의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다. 사심가득클래스는 청년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강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0개의 클래스가 열려 가야금 연주, 성우 연기, 도자 만들기 등이 진행됐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0개 클래스로 축소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생필품을 보내주는 긴급지원사업 '파봉이가 쏜다'도 진행됐다.



### 서울청년센터 오랑: 상담을 통한 맞춤형 청년정책 제공

올해부터 운영되는 오랑은 앞서 언급한 무중력지대와 운영 방식(위탁)이 유사하다. 다만, 2016년 설립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서울시와 오랑의 운영 단체와 함께 운영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게 차이점이다. '청년의 오늘을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오늘'의 '오'와 '너랑 나랑 함께'라는 구문을 이룰 때 사용되는 '랑'이 합쳐져 오랑이라는 이름이 완성됐다. 2020년 6월까지 4개의 공간(금천·관악·강동·은평)이 개관했고, 이들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최대 10개의 공간이 생기며, 이후 총 25개의 오랑(자치구별)이 생길 예정이다. 각 공간은 청년을 위해 종합 상담, 청년정책 및 지역정보 제공,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간이 위치한 지역의 특색과 위탁받은 운영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실행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오랑의 접점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청년 정책 제공'이다. 예컨대, 자신에게 필요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정보가 궁금하면 오랑 청년지원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서울청년포털'에서 오랑의 소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누리집과 카카오톡 친구 맺기에서 '정보풍풍'(서울시 광역 정보)을 신청하고 추가하면 오랑의 소식과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은 기존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이 2020년 '오랑'의 역할을 위임받으며 탄생한 곳이다. 신림동쓰리룸은 2019년 '내 인생의 오아시스'라는 슬로건과 함께 관악구가 민간 위탁으로 개관했다. 기존의 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에 오랑의 기능이 합쳐져 있다. 1인 가구와 원룸 인구가 많은 관악 지역 청년에게 그들이 주거 공간 외 다른 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 기반 치유 및 전문가 상담 행사가 눈에 띈다.

- 1  무중력지대 도봉의 외관
- 2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의 내부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고민 상담 전문 단체 '좀 놀아본 언니들'과 마음건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민달팽이유니온 및 청년약사단체 '마음약국' 등과 주거·건강 상담 클래스를 진행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운영이 어려워져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 청년 공간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새롭게 추가될 오랑의 프로그램과 기존 공간의 사업이 합쳐져 발전된 형태가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의 모습이며, 오랑 멤버십 가입 페이지에서 관악·동작·서초 거주를 선택하면 동네 정보를 모아서 보내주는 '동네정보풍풍'(서울시 권역별 정보)을 받아볼 수 있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무중력지대 도봉,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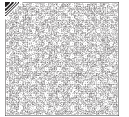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http://youth.seoul.go.kr)  
무중력지대 도봉 [blog.naver.com/youthzone0401](http://blog.naver.com/youthzone0401)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sygc.kr](http://sygc.kr) | 오랑멤버십 가입 [vvd.bz/eGK](http://vvd.bz/eGK)  
정보풍풍 [pf.kakao.com/\\_xkZAVxb](http://pf.kakao.com/_xkZAVxb)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 [vvd.bz/@신림동쓰리룸\\_놀러오랑](http://vvd.bz/@신림동쓰리룸_놀러오랑)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 동네정보풍풍 모음 [vvd.bz/@yc\\_ga\\_ts](http://vvd.bz/@yc_ga_ts)



# “건축은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건축가 유현준





건축가 유현준(스페이스컨설팅그룹 대표·홍익대 교수)은 대표작보다 입담으로 더 유명하다. 건축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방송가와 강연 시장에서 손꼽히는 ‘스타 지식인’이다.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건축을 알려온 그가 이번에는 건축을 중심으로 역사·과학·수학·예술 등을 아우르는 《공간이 만든 공간》(을유문화사)을 최근 펴냈다. 건축 책이라기보다 역사서에 가깝다. 학문 간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고, 다양한 분야를 중형무진하는 그를 최근 만났다. 그의 광폭 행보는 그가 정의하는 건축가로 설명된다. “건축가는 복잡한 사회의 관계를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형태가 드러나는 건축보다 관계에 집중하는 건축을 하고 싶어요.”

###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생각으로 더 유명한 건축가

대중이 그에게 열광하는 지점도 그가 설계한 건축물보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있다. 이번 책에서도 그 특유의 관찰력과 참신한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역사는 왕이나 권력자들이 서로 싸운 전쟁 이야기 중심이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갈등 중심으로 보는 거죠. 건축가는 나름대로 공간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니,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요. 문명사를 살펴보면 자연이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인간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은 다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가 생기는 순환적인 과정을 제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한 거예요.”

역사를 공간으로 보는 그의 시선은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다. 자연·과학·수학·문화·종교 등 방대한 분야의 조각들이 완벽한 하나의 퍼즐로 완성된다. 예컨대 강수량 차이로 밀 농사를 주로 하는 서양은 혼자 농사짓는 방식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이 커졌다. 외부와 단절된, 창문 없는 벽 중심의 건축이 발전했다. 반면 벼농사를 주로 하는 동양은 집단 농사 방식으로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했다. 안팎의 경계가 느슨한 기둥 중심의 건축양식이 나오게 됐고, 외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활양식이 자리 잡았다.

체스와 바둑도 건축가가 보면 다르다. 서양의 체스가 말과 코끼리 등이 등장하는 유목 사회의 전쟁을 상징한다면, 동양의 바둑은 논밭을 확장하고 경작하는 농경 사회의 축소판이다. 체스는 상대방의 말을 죽여서 없애는 힘겨루기 게임이지만, 바둑은 빈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쪽이 이긴다. 이런 특징은 건축과도 연결된다. “서양에서는 밀라노 대성당이나 콜로세움처럼 주변을 압도하는 건축물이 많지만 동양 건축은 경복궁처럼 여러 개로 나누어진 건물들이 빈 공간인 중정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공간 중심으로 역사를 읽는 시도는 사실상 그가 처음이다. 남다른 그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어릴 때부터 정답이 아닌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한 답은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빗나갔어요. 학창 시절에는 연도와 주요 인물과 사건을 줄줄 외워야 하는 역사 과목을 싫어했어요. 이번 책도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말이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저만의 시각으로 썼으니까요. 그저 책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도 그에게는 영감의 원천이다. 지난해 완공된 경기 양주시 서부권스포츠허브는 그가 햇빛이 들어오는 6m 깊이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설계한 작품이다. “물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데 하늘을 나는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파도 아래에서 수영하는 기분은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수영장 설계를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던지는 질문들은 제가 세상을 보는 각도이기도 하고요. 원래 초현실적인 생각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영감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책은 건축가로서 술하게 받아온 ‘창조적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천재적인 건축가들의 창작물을 살펴보면 시대가 주는 문제를 발견하고, 위기와 차이가 있을 때 시작됐어요. 위기와 다름은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데, 새로운 생각은 이런 갈등과 충돌을 화합시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오더라고요.”



## 건축은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건축은 실체지만 그는 거꾸로 빈 공간을 강조한다. 아이러니하다. “물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1950~2016)처럼 형태가 아름다운 데 중점을 두는 건축가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건축을 하는 이유가 빈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봐요. 벽을 세우려고 짓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벽 사이 공간을 쓰려고 짓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회와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이 달라져요.”

관계를 조율하는 건축, 이를 추구하는 그는 재미있는 예를 들었다. “한 동물원 설계 공모전에 나온 작품인데 동물들이 들어갈 우리를 아래로 파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기존에 평평한 대지 위에 동물들이 지낼 공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기린을 올려다봤잖아요. 그런데 땅 아래에 공간을 만들면 관객들이 기린과 눈을 맞출 수 있어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게 공간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서울 시내 최고의 건축으로, 비어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꼽았다. “서울 시내에 거의 유일하게 비어 있고, 평평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고 강변도로에 차들이 다녀서 밤에도 비교적 안전하고요. 여러 사람이 한데 섞이면서 공통의 추억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커피숍 등 도시 공간 대부분은 돈을 내야 머무르고 어울릴 수 있는 데 비해 한강공원은 빈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최고의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살기 좋은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예요.

그러려면 빈부나 계층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야 하죠.”

빈 공간이 많을수록 좋은 도시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살기 좋은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예요. 그러려면 빈부나 계층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야 하죠.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는 벤치가 170개나 있어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고작 3개예요. 이런 빈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이기 어려워지죠. 결국 끼리끼리만 모입니다. 익명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많이 만들수록 건강한 사회가 될 거예요.”

서울에 빈 공간이 적은 이유에 대해 그는 급속 성장을 꼽는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5000년 역사에 없던, 밀도 높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아름답지만 단층이었어요. 인공의 고밀도 도시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온돌 때문에 높은 건축물을 짓기도 어려웠고요.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만들거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생각보다 도로, 지하철, 빌딩 등을 세우기에 급급했죠. 획일적인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런 공간에 살면서 가치관이 정형화되는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무작위의 고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공간 체계를 만드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 미래 도시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도 예고된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고대에서부터 이미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전염병은 도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전염병을 막을 방법은 건축적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프랑스 파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수도를 만들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위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유층이 파리로 옮겨갔고, 그래서 문화예술도 꽃피울 수 있었다고 봐요.”

과거에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도시의 위생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의 빈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날 일이 크게 줄었어요. 기술 발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고, 집에서 클릭한 번으로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됐죠. 비대면 사



회가 되면 사회 계층 분리가 훨씬 심해질 거예요. 기술을 이용하고 접속 가능한 사람이 기득권층이 될 거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를 공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섞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을 이용해 지하 물류 터널을 만들면 인공지능 로봇이 지하로 택배 등 물류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비워지죠. 그 공간을 다양한 사람들이 두루 섞일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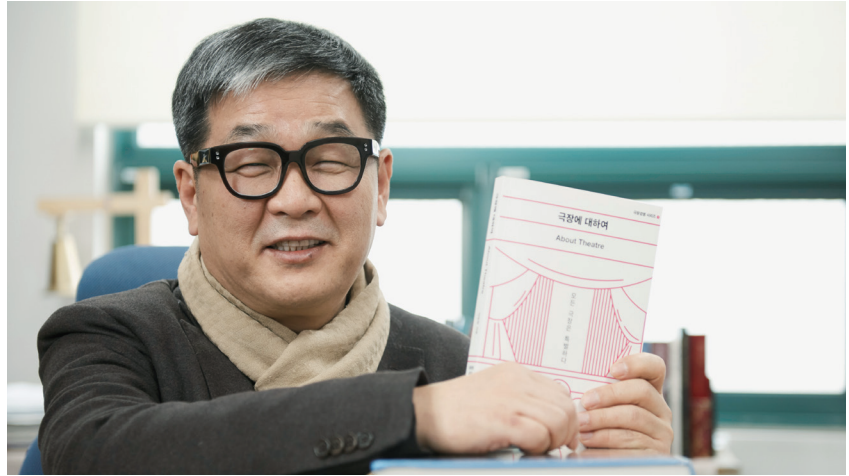
그는 미래에 각광받을 도시로 전염병에 강한 고밀화 도시를 꼽았다. 이미 코로나19 방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서울이 ‘미래의 뉴욕’이 될지도 모른다. “고밀화한 도시들은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도시를 다 떠날까요. 인간은 늘

무리 지어 살기를 원해요. 도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어요. 다음 단계는 스마트한 고밀화 도시가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물류 인프라가 잘돼 있고, 인공지능과 융합돼 있는 공간이 필요해질 겁니다. 이미 한국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방역을 통해 절반은 성공했어요. 의료 체계도 훌륭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함께 사는 사회를 고민해야죠. 저는 최근 코로나19로 우려되는 점으로 가장 많은 분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까 봐’라고 답한 한 설문조사에서 희망을 봤어요. 자신보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거죠. 서울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 사람이 섞여 살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 강지원 《한국일보》 기자 사진 공간느루



## 미래 극장에 대한 모색



### 이승엽

교수



이승엽은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 1987년 예술의전당 창립 멤버로 문화예술계에 발을 들였고, 2001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예술경영을 가르쳤다. 이후 극단 대표와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거쳐 제8대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역임했다. 2013년 한국예술경영학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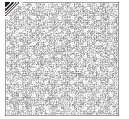
#### “모든 극장은 특별하다.”

이론과 실무가 녹아든 문화예술 서적 《극장에 대하여》(이승엽 지음)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국내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전문 경영인이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체대로 된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설립한 서울 예술의전당 창립 멤버로 시작해,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교육자로, 현장에선 극단 대표에서부터 최대 규모를 자랑한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감독까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인생 대부분을 극장과 관련된 일을 해온 그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한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메르카단테 극장에서 〈오이디푸스〉를 관람하던 201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의 작품을 보면서 ‘극장의 역사와 앞으로 전개될 극장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책의 전반부는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와 르네상스를 거쳐 동양과 서양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역사를 아우른다. 더불어 시간적 흐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후반부로 가면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살려 ‘극장을 이해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작가는 이것이야말로 극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입체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극장의 미션과 재원, 운영 형태, 무대와 객석의 관계, 극장 크기, 프로그램 제작 방식, 용도, 물리적 조건과 특성, 이해 당사자, 그리고 내외부 환경과 여건’이다.

이런 키워드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지 싶다. 30년 넘게 이어온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그의 다음 책이 벌써 기다려진다. “극장 경영의 각론이 될 수도, 아니면 우리 공연 생태계의 70%를 차지하는 공공극장의 미래에 관한 것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경계인 ‘청년예술인’ 고민

###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자신을 대학생과 예술가의 경계에 서 있는 작가라고 소개한 고안철 씨(사진 맨 오른쪽)는 최근 주목받는 ‘청년예술’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 졸업 뒤, 어렵게 작업해도 발표 기회조차 얻기 힘든 사례를 경험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획 사업을 열기도 하지만, 대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죠.” 제주도 출신의 그가 지난해 연 첫 개인전 〈히어, 데어 앤 에브리웨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반출이 불가능한 현무암을 제주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청년예술가들이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나 대안공간에서 꿈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과 비슷하다.

이처럼 청년예술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집단인 ‘콜렉티브 총정로’로 이어졌다. 청년이 많이 모이는 을지로와 홍대 거리의 경계에 있는 청년예술청의 의미처럼, 초년생과 기성 예술가의 경계에 있는 청년예술가의 고민을 담은 셈이다. 이는 향후 청년예술청에 운영 방향을, 앞으로 전개될 청년예술정책에 중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고씨는 청년예술가의 고민을 담은 상상포럼 ‘엔(N)년 뒤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전부 사라진다면’(5월 8일 오후 2시)을 준비했다. 포럼에는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아지는 예술계 현실에 대한 자조와 획일화된 구조를 탈피하는 바람을 담았다. 자신도 언젠가 청년예술이라는 껍질을 벗겠지만, 당사자는 청년예술의 미래를 이렇게 상상했다. “예술정책에서 ‘청년’이라는 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청년예술정책이 완성될 거예요.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로 호명되지 않고, 세대와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예술 활동을 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 고안철

작가



고안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주요 전시로는 〈CRR〉 〈히어, 데어 앤 에브리웨어〉(이상 2019년)가 있으며, 청년예술청 개관 준비단 ‘콜렉티브 총정로’의 정책워킹그룹과 비영리단체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기획팀에 소속돼 있다.



#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눔을 실현하다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의 파트너 기업 ‘GS SHOP’

국내의 대표적인 홈쇼핑 기업 GS SHOP은 지난 2018년부터 문래창작촌 지역 예술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는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이하 <MEET>)의 파트너 기업으로서 서울문화재단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의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GS SHOP에 대해 알아보았다.

GS SHOP이라고 하면 TV홈쇼핑 채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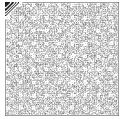
GS SHOP(대표 김호성, [www.gsshop.com](http://www.gsshop.com))은 1995년 우리나라에 첫 TV홈쇼핑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TV, 인터넷, 모바일, 데이터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GS SHOP은 이러한 다양한 채널은 물론 지난 25년 동안 축적된 경험 및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고객과 함께 고객의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TV홈쇼핑을 선보인 게 GS SHOP이었다니 놀랍습니다. 혹시 가장 처음으로 판매한 상품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합니다. 1995년 8월에 시작된 첫 TV홈쇼핑 방송에서 소개한 상품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능리모콘’이었습니다. 아쉽지만하게 소개한



GS SHOP의 사옥



- 1 도네이션 방송  
〈따뜻한 세상 만들기〉
- 2 '무지개상자' 사업의  
일환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상품이었지만, 당시 주문량은 10개가 채 되지 않았는데  
요. (웃음) 실적은 미미했어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순  
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GS SHOP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  
으로도 유명한데요. 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공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GS SHOP은 창사 이래 꾸준히 사회공  
헌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매년 방송 영업이익의 4%  
이상을 사회공헌 사업에 지출하는, 유통업계의 대표적  
인 사회공헌 기업입니다. 특히 GS SHOP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4가지 주  
요 테마인 아동,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방송 발전 분야에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GS SHOP이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동 분야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지난 2005년부터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공연 관람과 악기 지원을 비롯해 클래식 음악 레슨,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무지개상자’ 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TV홈쇼핑 방송 시간의 일부를 별도로 할애해 이를 장애인재활단체, 친환경기업, 공정무역단체 등 사회적기업의 상품 판매를 위해 기부하는 도네이션(donation) 방송인 <따뜻한 세상 만들기>, 사회적기업 언더독스와 함께 청년들의 소셜벤처 창업을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2010년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GS SHOP 대학생 봉사단 ‘리얼러브’ 등도 당사의 중요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 밖에 임직원 참여형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프

로그램인 ‘GS 러브러브 펀드’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사업 등도 진행 중에 있고요. 2018년부터는 <MEET>를 통해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문래동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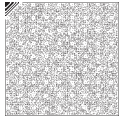
말씀하신 대로 GS SHOP은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서울문화재단과 파트너 기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GS SHOP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이 영등포구 문래동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당사의 주요 사회공헌 가치 중 하나인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생적 예술가 마을인 문래창작촌의 예술가와 예술 생태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 서울문화재단 문래

3 GS SHOP 대학생  
봉사단 ‘리얼러브’

4 <MEET> 사업 결과  
전시 전경





예술공간에서 2010년부터 <MEET>를 통해 문래창작촌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전문 예술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한다면 문래창작촌만의 지역 정체성이 살아 있는 창의적인 작품 세계와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서울문화재단에 먼저 연락을 드려서 해당 사업을 저희 GS SHOP과 함께 발전시켜 지역 예술가들의 잠재된 재능과 감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 협력을 추진하게 됐고, 그때 시작된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습니다.

####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우선 문래창작촌 내의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진행하는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진행하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할 수 있었고,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순수예술 지원’이라는 새로운 층위로 GS SHOP이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MEET>에 대한 GS SHOP의 역할이 단순히 지원에서 끝나기보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거점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은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2018년과 2019년 말에 저희 GS SHOP 사옥 1층에서 <MEET>의 결과 전시를 개최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물론 GS SHOP과 서울문화재단의 임직원, 문래창작촌의 예술가, 그리고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와 같은 장을 만들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GS SHOP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GS SHOP의 사회공헌 사업은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 위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 인재 육성을 비롯해 영세기업 및 사회적기업 후원,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MEET>를 통해 문래창작촌의 문화예술 브랜드를 만들어나가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정리 선결\_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사진 제공 GS SHOP 사진 서울문화재단

####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소개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는 국내를 대표하는 자생적 예술가 마을인 문래창작촌의 우수한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추진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예술가 1,600여 명이 기획하고 운영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200여 건을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2018년부터는 문래동에 본사를 둔 기업 GS SHOP의 후원으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문화예술계의 상황을 감안해 사업 방향을 일부 조정, 7월부터 12월까지 총 25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선정 공연 <2019 Mullae Metal City>(여반아트)

아트서울  
기부문화재단

<아트서울 기부문화재단>는 적지않은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문화도시 프로젝트까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기부 브랜드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아트서울 기부문화재단>을 통해 예술 기부로 함께하는 기부자의 인터뷰로 아름다운 나눔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 할나

이제 남은  
반(半)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우니  
땀을 요구합니다만,  
모든 못 생명은  
내내 아물게  
살아가기 위해  
태양에 맞서며  
속을 다지고  
다지겠지요.

〈동묘 벼룩시장〉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 전환 사회의 예술인을 위한 상상력

## 2025서울예술인플랜 수립 1차 토론회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불거진 이슈들과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며 '2025서울예술인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2016년에 이어 새롭게 수립되는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공유하고 향후 진행 과정에 많은 예술인이 참여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자리로 1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에도 계획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면서 예술인들과 함께 계획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전환'을 키워드로 진행된 1차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               |                                                                                                                                                              |
|---------------|--------------------------------------------------------------------------------------------------------------------------------------------------------------|
| <b>일시</b>     | 2020년 6월 12일(금) 오후 3~6시                                                                                                                                      |
| <b>장소</b>     |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Youtube 스팍TV 생중계                                                                                                                                |
| <b>주관</b>     | 2025서울예술인플랜 기획단                                                                                                                                              |
| <b>공동주최</b>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영등포공유원탁회의, 공유성북원탁회의,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
| <b>사회</b>     |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2025서울예술인플랜 기획단                                                                                                                             |
| <b>발제</b>     |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br>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25서울예술인플랜 기획단<br>백선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
| <b>토론</b>     | 박현지 로먼틱융광로 대표(<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참가 예술인)<br>이도윤 영화감독(<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참가 예술인)<br>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br>김재상 서울청년예술인회의<br>이소주 영등포공유원탁회의<br>안태호 웹진《예술경영》편집장 |
| <b>토론회 영상</b> | youtu.be/oL3f6JOfCU                                                                                                                                          |

### 발제 1 예술 전환의 분기점, 코로나19: 코로나19가 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과 전망 양혜원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 축제의 취소 및 연기, 문화시설이 휴관 또는 폐관하면서 예술 활동이 위축된 것 등이다. 동시에 예술인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득 감소와 함께 영세한 예술 단체가 도산했다. 한편 위기를 계기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국회를 통과했고,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부상했다.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유통·판매가 증가하고 예술과 기술의 결합 요구가 확대되는 측면에는 긍정론과 비판론이 공존한다. 긍정론에서는 관객 기반 확대와 수익 모델 창출을 기대하는 반면 비판론에서는 예술의 정체성 위기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접근성과 표현의 다양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다. 아울러, 소외와 고립, 혐오와 갈등의 완화와 연대, 생태적인 감수성,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예술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예술 표현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예술에 내재된 혁신과 회복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인 예술 분야의 피해를 보면, 한국예총의 3월 조사 결과 취소나 연기된 문화예술행사는 2,511건, 피해 금액은 523억 원이었다. 4월 문화부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응답자 24,330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예술인의 비율은 87.4%, 고용 피해 규모는 100만~500만 원이 49%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4%가 하락해 전체 산업(-5%)보다 피해 규모가 컸다. 공연과 전시 분야에 미친 피해는 2020년 1~5월 공연은 4,877건, 시각예술 전시는 3,561건이 취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공연예술은 약 990억 원, 시각예술은 약 2,446억 원으로 총 약 3,437억 원이다. 한편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전체 종사자는 전년 대비 2월부터 4월 까지 평균 6.9% 감소했으며,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 고용 피해 추정액(2020년 2~5월)은 최소 226억 원이다. 이렇



게 심각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책 패키지로 대응하고 있다. 중간 평가를 해보면 초반 대응은 빨랐지만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피해 심각성에 적절히 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예술계 지원에 대한 철학과 관점 제시에 취약했던 부분이 아쉬웠다. 향후 전환을 위한 모색으로 첫째, 범문화예술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야 하고, 예술재난보험·문화재난기금·예술인공제회·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 피해 규모 추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나 통계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확산과 관련해 인프라 구축, 대관과 대여, 제작과 기술, 인력 양성과 지원이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저작권 제도의 정비나 유통 플랫폼의 구축과 지원, 수익 창출 사업화 지원, 디지털 격차 완화와 표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시도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 발제 2 전환 시대, 현장의 생각과 목소리 홍기원

‘2025서울예술인플랜 기획단’ 회의와 전문가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12개의 주제로 정리해 보았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친 후 전환의 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다. 먼저 ‘예술가의 자기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예술가는 공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아를 인식하고, 상품을 만들지, 창의적 작동성을 만들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작동성을 만드는 예술가가 나와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는 예술가가 많아져야 한다. 두 번째, ‘예술가가 갖는 정책 인식’을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한다. 공공지원만이 아닌 다원화된 지원정책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예술가가 돼야 한다. 예술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도 많아져야 한다. ‘예술가 교

육의 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예술가의 권리 개념을 깨달아 주장하고, 예술 교육의 분절성, 위계와 카르텔을 허무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에서 나온 ‘사회적 정의’ ‘환경적 정의’ ‘경제적 정의’이다. ‘환경적 정의’는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생태적 가치나 기후 정의의 활동성에 대해 전환적으로 생각하는 예술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사회적 정의’는 성평등이나 반(反)차별 의식을 확장하는 예술가의 역량을 인식하는 정책,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는 예술의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정의’는 창작만이 아닌 소통 행위의 노동성 인식과 플랫폼 노동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의 예술가’에 대한 인식’은 예술가를 서비스 생산자로 보고 행정 목표 달성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거버넌스의 작동을 위해 중간 지원이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표성과 윤리’는 결사체의 대리 역할을 하는 이들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일반인의 거버넌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보나 평론 등의 영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회복탄성’은 개개인의 대응력보다는 사회 전반의 회복탄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철학(가치)’의 전환은 신뢰 기반의 활동이 강화돼야 하고,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참여와 개입이 가능한 협치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본질적인 역할·기능·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과정과 방식의 중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보고 바뀌어나가는 시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환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었다.

## 발제 3 2025서울예술인플랜의 방향 백선헤

서울시가 2016년에 발표한 서울예술인플랜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위부터 차례로)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25서울예술인플랜 기획단,  
백선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예술인의 주거와 창작 공간 지원, 활동 기회 제공, 창작 활동 촉진, 예술인의 성장과 발전,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 5가지 분야 42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올해 다시 수립한다. 2016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예술인과 예술을 둘러싼 급변한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3가지 원칙은 계획의 당사자성·협치성·민주성이다. 당사자성은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원칙, 협치성은 예술가와 행정 전문가가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말한다. 민주성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먼저 기획단을 구성해 새로운 계획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지 토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재난 상황이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난사회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종합해 전환·지원·지역·생활·거버넌스·공간 6가지 의제를 도출했다. 심층 논의를 위해 예술인과 문화정책 및 행정 전문가를 초청, 의제별로 각 2회, 총 10회의 세미나를 완료했다(공간 의제는 향후 개최). 앞으로 예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설문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의제를 중심으로 큰 과제를 도출하고, 예술인의 참여를 통해 발굴되는 내용을 종합해 주요 과제와 사업을 설정한다. 하반기에는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더욱 많은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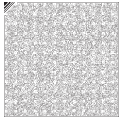
### 새로운 시도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

**최선영** '2025서울예술인플랜'은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이후 운영에도 협력하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섯 분의 토론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지** 먼저 '2020 서울 데카메론'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 2월 예지 그로토프스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선정돼 이탈리아에 체류하다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3주간 격리생활을 하면서 14세기 흑사병 시대를 다룬 《페스트》와 《데카메론》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다행히 전세기로 한국에 도착했고 다시 2주간 격리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외의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심리적으로는 무력감, 고립감, 불안감이 컸어요. '어떻게 지내?'라는 한마디 안부를 바탕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흑사병을 피해 격리된 청춘남녀 10명이 하루에 1개씩 열흘 동안 한 100개의 이야기를 묶은 게 《데카메론》이에요. 여기에서 착안해 서울을 매개로 다른 친구들을 엮어보는 100편의 릴레이 영상 설화집을 제안했어요.

이번 토론회에 초대받았을 때 사실 놀랐어요. 저는 1988년생인데 예술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반영돼서 정책이 바뀐 경험이 없거든요. 많은 친구가 알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내 다시 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이런 자리는 긍정적입니다. 과정에서의 작은 실천과 도전을 응원하는 구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도윤** 저도 이탈리아와의 악연으로 총 한 달간 격리를 했는데요. 공모전을 알고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영화판에서는 극장이 조만간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어찌 됐건 영화를 제작하는 현장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이 했어요. 20년 전쯤 대학에서 첫 단편영화를 찍어본 후에,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고민한 것을 구체화했어요. 말 그대로 '조립식 영화'인데요. 모든 출연자와 제작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놓은 것을 연출자가 잘 어루만져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제가 속한 회사가 CG를 하는 곳이라 이런 것에 익숙하거든요. 360도 모델링을 하면 배우들이



위험한 장면을 직접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확대한다는 생각으로 낸 기획안입니다. 결국 영화라는 예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이런 공모전이 계속돼야 해요. 낙수가 아닌 직수로 예술인에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나누고 상권도 살리고 열심히 할게요. 1~2명의 제작자, 연출자가 하나의 일을 따내면 여러 명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모전을 분기별로 하나씩만 해주신다면 굉장히 고마운 혜택이 될 것입니다.

**최선영** 이번 지원사업은 정산 없이 진행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코로나19 상황에만 가능해진 것도 기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예술인플랜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어떤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철** 앞선 두 분의 사례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으로 진행된 점에서 착안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예술인플랜은 이미 모든 것이 확실한 세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세운 계획임을 전제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협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협치는 절충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 과정이 실패하는 곳에서 다른 행정 과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시민과 행정 사이에 갈등이 수반되더라도 제3의 대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서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매뉴얼처럼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술인에게 행정 자원이 공동의 것이라는 감각을 구체적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지원사업을 대하는 예술인의 속내는 '따온다'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에서는 예술인 참여예산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술가들이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분배하는 과정을 실험해 보면 좋겠고요.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예술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보다는 예술인 당사자가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수행 과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간 하지 못했던 이

얘기, 미진했던 시도를 할 때고 그런 면에서 서울예술인 플랜이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상** 저는 청년예술인 혹은 청년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나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 관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체제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공감대에 바탕을 둔, 주체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의지 표명으로서의 뉴 노멀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환'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 체제의 전환이나 뉴 노멀의 관점으로 2016년에 서울예술인 플랜이 수립됐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술과 형식에 대한 전환으로 본질적인 의미가 치환됐다는 생각에서, 현재 논의 중인 예술인 플랜에서는 다층적인 성격의 전환 개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환 사회가 온라인과 비대면 콘텐츠 중심으로만 얘기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온라인 콘텐츠화가 어떤 차별성과 전략을 갖는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예술과 예술인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스팍TV'를  
통해 생중계된  
2025서울예술인플랜 수립  
1차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2025서울예술인플랜 기획단,  
박현지  
로맨틱용광로 대표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장가치 비법〉 참가 예술인),  
이도윤  
영화감독(〈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장가치 비법〉 참가  
예술인),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재상  
서울청년예술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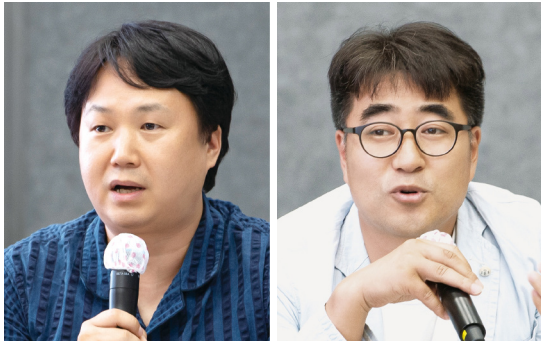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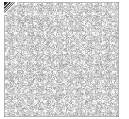
에 대한 전략입니다. 긴급 지원 성격의 사업이 공급형으로 뿌려지다 보니 쏠림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원사업 밖에 존재하는 예술인들을 얼마만큼 고려했는지 의문도 들고요. 중요한 것은 예술인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고 예술인 또한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5서울예술인플랜은 문화예술계에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인이 바라는 서울에 대한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은 앞선 문제 제기와 6개 의제와도 맞닿아 있으니 이를 기초로 두고 설계 방향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주** 저는 영등포의 문래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동해왔는지 말씀드릴게요. 2005년 전업 작가로 문래동에 입주해 청년 작가로 있다가 15년이 지나 지금은 중년인데요. 그동안 지역문화·교육·공공예술·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현재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의 창작보다 예술인의 생태적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등포의 문화적인 힘은 문래창작촌에 있고 예술인들이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이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활동과 예술인플랜에서 하려던 일이 유사해서 흥미로웠어요. 임대료가 저렴한 공간을 찾아 예술가를 입주시키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마켓 등을 통해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생각한 것이 현재에 이르렀어요. 지금은 영등포 인근에서 상권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다시 기획하면서 문화적인 것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술 활동을 일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도 생존력이 높아질 거라 생각해요. 문화적인 것이 지역에 잘 안착하려면 자치구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결과물 전시나 공연 지원이 아닌 세부 과정을 지원하고 신뢰하는 지원 체계가 많아지면 예술가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태호** 저는 2012년 예술인 복지 제도화 이후 2016년 서울시가 예술인플랜을 발표했을 때 전환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예술가를 돈을 투입하면 프로젝트를 토해내는 자판기처럼 봤다면,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점이 전환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고민이 계속돼야 하고요. 예술가들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예술가의 인식이 바뀌고 수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와 권리로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체부 발표 중에 공공미술 관련 내용이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공무원이나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모종의 절차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가능한데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관성으로 대응해 온 것을 팬데믹을 통해 알게 됐어요. 위기 이후 어떻게 바뀌낼 수 있을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공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 영역은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보수적이예요. 공공기관 청사 1층처럼 비어 있는 공간에서 예술인들이 시민과 만나는 방식의 접근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이 공모사업의 기금을 따



(왼쪽부터)  
이소주  
영등포공공유평의회,  
안태호  
웹진 《예술경영》편집장

내기 위해 프로젝트를 급조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차분하게 활동을 점검하고 지역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면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영** 남은 시간 동안 댓글로 주신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환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예술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개발 계획이나 적용 방향을 물어보셨습니다. 2016년 계획과의 차이점도 궁금해하셨고요.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선훈** 2016년에 발표한 서울예술인플랜은 도전적이고 참신했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그중 미흡했던 거버넌스 체계는 이번에는 실효성 있고 항상 유지될 수 있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예술인의 당사자성이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는 거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술인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쌓이고, 행정과 예술인 간의 신뢰가 쌓이다 보면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안태호** 코로나19로 이전의 성과지표들도 완전히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몇 명 이상 와야 한다는 성과지표가 무력화됐는데 재편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관 성과지표 문제도 심각해요. 경영평가 때면 전년도보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정량에 맞추는 성과지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홍기원** 저는 서울예술인플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도와 실험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처음, 새롭게 해보는 것이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실행해 보지 않은 제도가 예술인플랜에 들어가고, 어떤 과제는 새로운 행정 방식으로 해보자는 제안이 시도된다면 모든 사람이 벅찬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영** 영화는 특히 결과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데요. 영화를 만들 때 많은 리서치가 필요할 텐데, 영화감독으로서 리서치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도윤** 주변에 영화를 준비하면서 청춘을 바친 친구들이 많아요. 뭐 하고 사나 보면 일종의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예술은 뜬구름 잡는 자신의 철학을 남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보니 활동으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영화는 사전 준비 기간이 길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예술인이라는 철모르는 존재들을 국가의 일원으로 안고 가주려면, 봉준호·박찬욱 감독이 언젠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면 우리 일상이 바뀌거든요.

**양혜원** 김상철 선생님께 예술인에게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어떤 기준이 바람직할지 의문을 가졌거든요.

**김상철** 서울시는 이미 매년 750억 원 정도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배의 원칙은 선정과 탈락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재원의 규모를 공공이 만들어주면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은 예술인 당사자가 제안하는데요. 행정에서 예술인을 감시하는 것보다 예술인 동료 집단이 건전하게 비평 기능을 하는 방식이 지속가능성 보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무언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선영**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환을 한다는 건 뭐가 있는지 모른 채로 땅을 깊게 파보는 것일 수 있는데, 파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겨내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기자, 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진 공간느루



## “간송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간송미술관 경매를 둘러싼 논란

### 간송 보물이 왜 경매에?

일제강점기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한 이 불상들은 현재 간송 후손이 소유하고 간송미술관이 관리해 왔으나, 누적된 재정난을 건디지 못하고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송미술관은 공식 입장문에서 “송구스럽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2013년부터 대중 전시와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고, 2018년 간송의 장남인 전성우 전 재단 이사장 별세 후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비용이 유물에 대한 상속세로 해석되면서 문화재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보·보물 등 지정 문화재는 물론 비지정문화재, 공익법인인 미술관 등의 전시·보존품 등에 대한 상속세는 비과세되거나 상속세액의 징수가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로 간송 일가의 문화재 상속세 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송 컬렉션 중 국보와 보물은 간송 후손의 개인 소유이고, 비지정문화재는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 하지만 간송 측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외부에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간송 측이 말하는 비용은 문화재의 상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문화재 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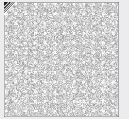
지난 5월 한국 문화재의 보고(寶庫)이자 상징인 간송미술관이 보물로 지정된 금동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아 문화계가 충격에 빠졌다. 5월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된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이다. 뜨거운 관심 속에 경매가 시작됐지만 결과는 유찰. 각각 시작가 15억 원에 나왔으나 두 점 모두 응찰자가 나서지 않았다. 현장에서도, 전화와 서면으로도 응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간송미술관은 그동안 ‘지원받으면 간섭도 받는다’는 이유로 거부해 온 ‘사립미술관 등록’을 지난해 9월 마쳤다. 미술관으로 ‘공식 등록’한 덕에 현재 미술관 수장고, 대구 분관 신축 등에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8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은 높이 38.2cm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눈을 감고 입을 오픈된 채 미소 지은 얼굴, 아랫배를 조금 내밀고 선 자세가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 넘친다.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은 “꾸밈없이 미소 띠는 얼굴은 삼국 시대 불상 양식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 불상의 격을 높여준다”고 소개했다.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은 경남 거창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질 뿐 확실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머리에 보관을 썼고 얼굴은 긴 편. 학계 일각에선 이 금동보살입상에 대해 진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 문화계 관계자들은 “진위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 15억 원이라는 가격의 적정성,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전 협상 후 구입을 희망했는데도 경매를 강행한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순수



1



2

민간단체인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신성수 고려산업 회장)의 후원을 받아 국립박물관이 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케이옥션과 사전 합의를 시도했지만 옥션 측이 경매를 강행해 개인 컬렉터들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열악한 상황에서 간송 전형필이 구입해 지켜왔다는 스토리에다 국가가 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높아 압박이 심했다”고 밝혔다.

### 일제 때 사비 털어 문화재 지켜낸 간송

간송미술관은 193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일제강점기에 간송 전형필이 문화재 수집을 위해 헌신하며 지켜낸 유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국보《훈민정음 해례본》부터 불쏘시개가 될 뻔했던 겸재 정선의 《해악전신첩》을 거두고 신윤복의 《해원전신첩》을 대한해협 건너 찾아온 스토리가 감동을 줬다. 소장품 목록이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국보 12건, 보물 32건, 시·도지정문화재 4건 등 지정문화재만 48건에 달한다. 최고의 문화재를 보유한 미술관이지만 ‘은둔의 미술관’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1971년부터 매년 봄·가을 열리는 특별 전시회에만 미술관을 열었기 때문. 노후화된 시설과 좁은 공간도 문제였다.

2대인 장남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차남 전영우 이사장을 거쳐 3대인 손자 전인건 관장이 맡으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2014년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5년 협업으로 외부 전시를 펼치고, 성북동 보화각 옆에 신관을 짓고 대구에 분관을 마련하는 등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 국보·보물도 팔 수 있나

국보·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 신고만 제대로 하면 사고팔 수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소유주 변동 사항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매매가 가능하다.

이광표 서원대 교수는 “문화재 역사로 보면 간송이 지켜낸 유물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며 “해외 박물관은 소장품을 사고파는 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데, 우리는 돈 장사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 간송이 소장품을 팔아 미술관을 짓고 더 좋은 관람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글 허윤희 《조선일보》 기자 사진 제공 케이옥션

1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  
눈을 감고 입을 오므린 채  
미소 지은 얼굴, 아랫배를  
조금 내밀고 선 자세가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 넘친다  
2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머리에 보관을 썼고  
얼굴은 긴 편.  
경남 거창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질 뿐  
확실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멀고도 가까운 예술 그리고 장애

잠실창작스튜디오의 2020년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 내용은 물론 제목까지 이  
토록 마음에 든 책도 드물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이 표지에  
나란히 적힌 두 낱말은 가족, 예술, 행복, 정치 등 우리 주변  
것들을 수식하기에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깝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더라도 쉬이 와닿기도 한다.  
두 단어는 양 끝에 놓인 의미 사이로 나를 소환해 그 ‘멀고  
도 가까운’ 존재들과의 관계, 심리적 거리를 인지시키고 내  
공감의 범위를 일깨워 준다.

필자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적극적으로 장애  
를 바라보지 않았다. 장애는 늘 저 멀리에 있었다. 2019  
년 9월, 문화예술공간 팩토리2에서 기획자 집단인 팩토  
리 콜렉티브로 활동하며 오로민경 작가와 함께 전시〈영  
인과 나비〉와 연계 프로그램〈공감각 운동회〉를 기획하  
기 전까지 말이다. 그때 처음으로 타인 또는 사회가 규  
정하는 신체적 한계와 기준에 질문을 던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예술적 언어 소통과 서로의 다른 감각의  
이해 및 확장에 대해 고민했다. 지난해 함께 팩토리 콜  
렉티브로 활동한 여혜진과 이룬 팀인 ‘다단조’ 활동의  
시작이자, 다시 장애와 예술을 한자리에 두고 다방면으  
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2020년 잠실창작스투  
디오의 〈굿모닝스튜디오〉 워크숍 기획 제안은 여러모  
로 반가웠다.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있는 12명의 ‘장애예술가’는 모두  
평면 작업을 하는 시각예술 작가이며, 각각 장애의 종류  
와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점이 기획의 단초였다. ‘장애’  
보다는 ‘예술가’라는 사실이 중요했고 이에 초점을 맞췄  
다. 장애에 따라 워크숍 내용이 어려울지 쉬울지, 활동  
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보다 더 깊이 고려한 것은 워크숍  
을 함께하는 기획자·참여 작가·입주작가 모두가 재미를  
느낄 예술적 실천과 각자의 예술 활동 내 확장성이었다.

총 3개의 랩(Lab)이 각 3주씩 열리며, 각 랩에서는 다른  
매체와의 협업·접속·융용 등 작업의 확장 가능성을 탐  
색해 보는 과정의 경험을 기획했다. 그 실천과 확장은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서로의 관계 사이에서 발현  
되기를 바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미뤄진 5월 6일, 소리를 통해



1



디자인과 미디어아트를 실험하는 다이애나밴드가 3주 과정의 사운드 랩(Sound Lab)으로 워크숍 첫날을 열었다. 소리를 직접 녹음하거나 찾고, 편집 과정을 거쳐 각자가 녹음한 소리가 업로드된 웹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즉흥 연주도 해보았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환경·도구·관계적 측면을 탐구해 보는 워크숍이었다.

다음 3주는 현재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인 최윤석과의 무빙 랩(Moving Lab)이 이어졌다. 각자 휴대폰으로 찍은 1분짜리 영상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자신과 타인의 얼굴을 스킵피와 지점토로 빚어보기도 했다. 또 사운드 박스로 소리 나는 드로잉을 스스로 수행하고 반대로 타인의 퍼포먼스를 보는 관객이 돼보았다. 평면을 벗어나 움직임·소리·조각·그림·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와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3주는 디자이너 홍세인의 1인 스튜디오인 '포푸리'와 함께한다. 프린팅 랩(Printing Lab)을 통해 입주작가들에게는 익숙한 드로잉이나 사진 등의 매체가 리소프린팅의 고유한 색 감각, 인쇄 기법, 인쇄 공정 등에 따

라 어떻게 변환되고 확장되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밟는다. 10주차에는 마무리로 워크숍을 기획한 '다단조'와 참여 작가들, 입주작가들은 물론 10월에 있을 입주작가 전시를 기획할 추성아 큐레이터까지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워크숍 과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개인별 작업과 앞으로 있을 전시 기획의 연결 지점을 찾을 예정이다.

### 서로 창작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는 시간

〈굿모닝스튜디오〉와 더불어 지난 5월, 서울문화재단 4개 창작공간(잠실창작스튜디오·금천예술공장·신당창작아케이드·서울무용센터)의 전·현 입주예술가 12명이 3명씩 4개 팀을 이뤄 협업하는 공동창작워크숍이 시작됐다.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작업하는 장애인·비장애 예술가로서, 또는 시각예술과 무용 기반 창작공간의 입주작가로서 '공동창작 작업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서로의 창작과 공감 영역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송고은 큐레이터와 이한범 아카이빙 기획자가 워크숍과 전시 및 아카이브 출간을 기획하며, 오로민경과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이 각각 참여형 워크숍을 맡는다. 참가하는 예술가들은 약 5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놓치거나 혹은 극대화해 온 감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인지하는 각자의 세계를 마주할 것이다.

다가오는 10월, 장애와 비장애의 공존을 주제로 〈같이 있는 가치〉라는 이름 아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앞서 언급한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및 공동창작워크숍 전시와 문화예술포럼이 열린다. '멀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그곳에 예술이 있고, 장애가 있다. "감정은 그 자체의 거리를 가진다. 애정은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 자아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침대 옆에 함께 누운 사람과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세상 반대편에 있는 낯선 이들의 삶에 깊이 마음을 둘 수도 있다."(《멀고도 가까운》, 리베카 솔닛 지음, 김현우 옮김, 반비(2016), 160쪽)

글 김다은 '다단조' 기획자 사진 서울문화재단



2 2020년  
〈굿모닝스튜디오〉워크숍 중  
무빙 랩(Moving Lab)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 클래식 음악에 가까워지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방법

### 아파트먼트 프란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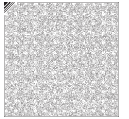
출판사 '프란츠'에서 기획한 '아파트먼트 프란츠'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도, 완전히 닫혀 있는 공간도 아니다. 입장 인원이 한정돼 있는 데다 행사가 있을 때만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곳을 다녀간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공간이 선사한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여운을 기억할 것임을.

책을 읽고 나서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들뜨거나, 저자의 머릿속이 궁금해서 저자를 만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가 됐다면, 당신은 그 책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음악가는 지금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기를 통해 음악을 열심히 들어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관련 책을 찾아 읽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이들은 그의 음악을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음악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의 흔적과 발자취를 배워간다.

출판사 프란츠의 김동연 대표는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이다.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도 이어가는 그녀는 자신이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때 사용한 교본이 지금까지도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과 곡들로 이루어진 클래식 음



출판사 사무실 겸 모임 공간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먼트 프란츠의 내부 공간



악 책이 필요했다. 그녀가 '프란츠'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차리기 전에도 몇 권의 바이올린 교본을 낸 까닭이다.

그녀는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이름을 따서 출판사 '프란츠'를 만들었다. "왜 슈베르트냐"라는 물음에, 김동연 대표는 슈베르트 말고도 위대한 작곡가는 많지만, 그의 음악은 지금 들어도 충분히 '세련되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고 답했다. 2017년 봄에 첫 책이 나왔고, 같은 해 여름 발간한 클래식 음악 관련 철학 책 《음악 혐오》는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최근에는 《스타인웨이 만들기》라는, 명품 수제 브랜드 피아노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 '음악'에 대한 책이라면 무릇 책 디자인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는 대표의 신념처럼, 프란츠의 책은 한권 한권이 시각적 만족감을 준다. 주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거나, 기본적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출판사 프란츠의 책을 찾고 있다.

그 이름에 '아파트먼트'를 붙인 '아파트먼트 프란츠'가 작년 10월 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음악과 관련된 책들을 출간하면서, 이 책이 독자의 손에 간 '다음'이 궁금했다고 이 공간을 기획한 이유를 밝혔다. 책을 출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음악을 듣고 감상하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 같은 책을 읽은 이후, 같은 음악을 들은 이후를 공유하는 시간

군더더기 없이 널찍하고 쾌적한 아파트먼트 프란츠는, 김동연 대표의 취향이 묻어 있는 곳이다. 큼지막한 액자로 걸려 있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악보, 평소에 영감을 받는 디자이너의 친필 편지가 눈에 띈다. 이 공간이 사무실로도 쓰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취향의 공간'이 곧 '삶'이자 '작업 공간'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곳을 찾게 되는 누구에게든, 일상에서 벗어나 '환기'가 되는 공간이길 바랐다는 기획자의 의도가 묻어 있기도 한 셈이다. 이곳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분리된 안쪽 공간인 사무실 겸 모임 장소, 그리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거나 다과를 할 수 있는 라운지가 그것이다. 분리돼 있는 안쪽 공간엔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한쪽 벽면에 그동안 '프란츠'에서 출간된 책 몇 권이 전시돼 있다. 검은색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악보집과 보면대, 그리고 이제는 아예 유물이 돼버린, 직접 사용했던 구식 TV 2대가 눈길을 끈다.

이 공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감상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곡을 회마다 다른 아티스트의 연주로 1년 동안 듣는다. 올해 함께 듣는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연주곡이다.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출판사 프란츠에서 출간한 책이 진열돼 있는 입구

40분이 걸리기도 하고,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사전 신청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동그렇게 모여 앉아 한 곡을 집중해서 감상한 다음, 그 곡에 대한 감상을 30분 정도 나눈다.

요즘같이 음악을 쉽게 켜고 끄기 좋은 시대에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곡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경험 자체가 꽤나 신선하고 독특하다. 또한 휘발성 강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주고받는 것에서 오는 기쁨 또한 크다.

이 공간에선 감상 프로그램 외에도 프란츠에서 출간한 책의 번역가와 함께 북 토크를 진행하기도 했고, 클래식 전문가와 함께 슈베르트에 대한 강연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 대표는 프란츠에서 펴내는 '책'을 매개체로 해, 클래식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을 열거나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눈이 반짝반짝한 소수의 사람들과 완성도 있는 시간을 보낼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클래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편이지만 막상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다. 김 대표는 자신만의 '취향'을 찾는 이들을 위해, 클래식 음악은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작풍(作風)'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좋다'고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 느낌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표현해 보면 좋다고 말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음악을 듣는 '재미'가 생길 것이다.

글·사진 전은정, 객원 기자



## 오늘, 우리의, 한국음악

### 전통예술 <여우락 페스티벌>과 <미리 듣는 산조대전>

‘여름’ 하면 축제이건만, 한없이 길어지는 재난 상황으로 문화예술계는 매월, 매일 주춤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예술을 이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신선한 기획으로 대중에게 한국음악의 현주소를 제시하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은 올해 11주년을 맞아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알찬 프로그램을 들고 왔다.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상반기 공연 예정이었던 대대적인 국악 프로젝트 <산조대전>은 공연을 1년 미루는 대신 ‘미리 듣기’로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공연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확실하게 즐기는 것뿐.

※ 해당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작 <삼합(三合)>으로 모인 김준수·정재일·이아람(왼쪽부터)

### 우리 음악, 어디까지 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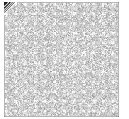
<여우락(樂) 페스티벌> | 7. 3~25 | 국립극장 및 온라인 중계

평균 객석 점유율 93%, 전체 관람객 6만 3천여 명. 그레 봐야 국악 아니냐는 선입견 속에서 여우락 페스티벌이 10년간 차곡차곡 이룬 성과다. 한국음악의 도전은 뜨거웠고, 관객은 더 뜨겁게 화답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국립극장의 여름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올해 11회를 맞이한다. 한국음악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실험을 보여주며 이러한 파격이 우리 음악의 현주소를 알려준 여우락은 지난해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압축한 무대를 마련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아티스트를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서로 다른 장르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0년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해 방점을 찍은 것은 ‘여기’, 즉 우리 음악의 현재다.

7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총 12편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젊고 ‘핫’한 아티스트들의 협업, 거장과 거장의 만남, 그리고 서로 다른 장르의 융합이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의 키워드다. 개막작 <삼합(三合)>은 음악감독이자 대금 연주자인 이아람을 중심으로 작곡가·연주자 정재일, 소리꾼 김준수가 합을 이룬 무대다. 영화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다재다능한 재주꾼 세 사람이 만들어낼 호흡에 단연 기대가 모아진다. 그런가 하면 폐막작 <그레이트 크로스(Great Cross)>는 예술감독이자 철현금 연주자인 유경화를 주축으로 교류의 무대가 될 예정이다. 뮤지션 타이거JK와 광고·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하는 조풍연이 공연을 함께 구성하고, 여러 게스트가 참여할 예정이다.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폐막작은 현 상황의



〈미리 듣는 산조대전〉의 출연진 김보경·오경수·정누리·이호진(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특수성을 고려해 국립극장 온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중계를 진행한다. 그간 아깝게 예매에 실패하거나 관람을 고민하다 포기했던 관객이라면 이 또한 여우락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프로그램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무대는 ‘굿 스테이지’다. 5일 하늘극장에서는 기존에 1박 2일간 진행되는 굿판을 9시간 길이로 압축한 동해안별신굿이 펼쳐진다. 수도권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별신굿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의 형태로 재구성했다. 7일에는 황해도 만신 이해경과 사진작가 강영호가 새로운 굿판을 벌인다. 인간의 염원을 담은 의식의 결정체인 굿을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것 같다. 이외에 파격적인 무대로 마니아층을 형성한 이날치, 한국대중음악상 2관왕의 림 김(김예림), 북 반주로 소리판을 평정한 박근영·조용안 고수 등 개성 강한 출연진이 기다리고 있다.

### 풍류방에서 현대인의 안방으로

온라인 콘서트 ‘링크(LINK)’ 〈미리 듣는 산조대전〉 | 7. 3 | 온라인 중계 산조(散調), ‘흠어진 가락’ 또는 ‘허튼가락’으로 풀이되는 산조는 민속음악의 한 갈래에 속한다. 하지만 그 깊이를 들여다본다면 산조야말로 우리 음악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금·거문고·해금·대금 등 독주 악기의 실내악 연주인 산조는 일정 부분 체계화된 음악 구조를 따르지만, 연주자 개인의 즉흥과 잔가락이 더해지면서 한 예술가만의 산조로 재탄생하게 된다. 명인으로 남은 연주자의 이름을 따 산조 앞에 ‘~류’라고 붙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흠어진 가락에 묻어나는 연주자의 기교와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농현은 우리 음악이 구사할 수 있는 기쁨을 한껏 끌어올린다. 그래서 선대의 산조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대가 새로운 산조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이 올 상반기 대대적으로 〈산조대전〉을 기획한 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다. 국내에 보존·전승·공연되는 산조를 망라하고 악기별 산조 유파를 한자리에 정리하면서, 동시에 울곧게 국악의 맥을 잇고 있는 연주자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은 이듬해로 미뤄졌다. 대신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온라인 콘서트 ‘링크’를 통해 〈미리 듣는 산조대전〉을 준비했다.

온라인 콘서트 ‘링크(LINK)’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관객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영상 무대’다. 지난 4월부터 오랜 시간 국악계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의 ‘여전히 듣고 싶은 무대’(4월),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5월), 그리고 ‘국악으로 해외를 누비는 아티스트의 무대’(6월)를 차례로 소개했다.

마지막 순서인 7월 3일에는 〈산조대전〉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연주자 네 사람이 짧은 산조와 기악 합주를 들려준다. 가야금 연주자 김보경은 가야금 산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성금연류를 연주한다. 대금 연주자 오경수는 서용석류 산조를 선보인다. 농음이 많고 음의 기복이 커 공력이 필요하기로 알려진 유파다. 거문고 연주자 정누리가 연주할 정대석류 산조는 거문고라는 악기의 특징을 잘 살려, 우직하고 호방한 슬기동을 엿볼 수 있다. 피리 연주자 이호진이 연주할 서용석제 한세현류 산조는 대금·아쟁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서용석 명인이 구음으로 짠 산조를 피리 연주자 한세현이 정리해 완성한 독특한 유파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이호진의 소리가 금금해진다. 선조들이 풍류방에서 즐긴 산조를 안방에서 만나는 경험, 오늘의 가락이 랜선을 타고 현대인의 삶 속으로 흠어들어간다.

글 김태희\_객원 편집위원, 무용평론가 사진 제공 국립극장, 서울돈화문국악당



## 현대미술, 오감으로 확장하다

전시 <사운드뮤지엄(SOUNDMUSEUM):  
너의 감정과 기억>과  
<퓨처데이즈(Futuredays): 시간의 공간>

현대미술이 '시각'을 넘어 오감으로 확장한다. 소리가 주인공인 전시,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에서 완성되는 전시가 주인공들이다. 조용히 명상하듯 감상하는 현대미술을 생각했다면, 이 두 전시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5G 시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IT의 도움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는 현대미술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객에게 질문한다.



디뮤지엄에 설치된 <빛의 숨결(Breath of Light)>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다채로운 '소리'들

<사운드뮤지엄(SOUNDMUSEUM): 너의 감정과 기억>

5. 19~12. 27 | 디뮤지엄

젊고 트렌디한 전시로 유명한 디뮤지엄이 '소리'를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한다. <사운드뮤지엄(SOUNDMUSEUM): 너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말 그대로 소리를 통한 시각·촉각·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개막이 수차례 연기되다 마침내 문을 열었다. 전시 기간도 12월 27일까지로 늘어났다.

전시는 먼저 '귀'라는 신체기관을 깨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비드 헬비히의 영상을 따라 하며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다 뗐다를 반복하면 혼자만 들을 수 있는 비트가 들린다. 어릴 적 친구들과 했던 장난처럼 간단한 퍼포먼스지만 집중력은 최고다. 이어 방과 방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작품은 연이어 우리의 감각을 깨운다. Lab212는 전시장에 천장에서 바닥까지 광섬유를 설치하고, 이를 건드리면 가장 안쪽에 자리한 피아노가 특정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했다. 관객은 마음에 드는 광섬유를 튕기거나 만지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우연한 사운드를 경험한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헨케는 임팩트 강한 사운드와 함께 섬광처럼 빛나는 레이저 사운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레이저는 벽에 설치된 거울에 반사되며 무한한 공간으로 관람자를 이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방에선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온다. 마치 무중력의 우주에 갇힌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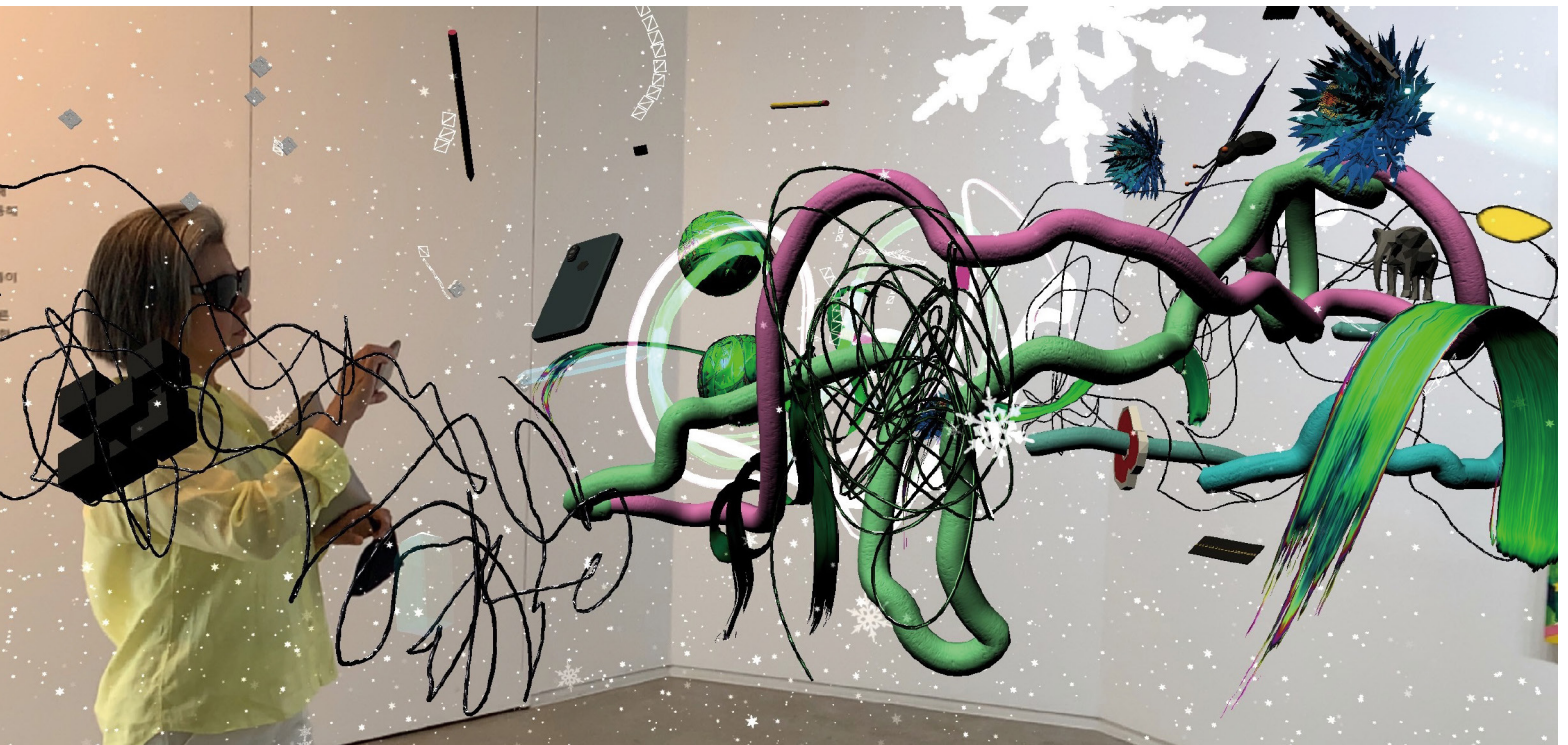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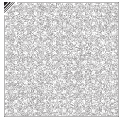
전시는 외부 공간인 3층에서 하이라이트를 맞이한다. 음악을 추상 애니메이션으로 변화를 시도한 오스카 피싱거·메리 엘렌 뷰트·줄스 앵겔·조던 벨슨 등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1930년대 비주얼 뮤직으로, 소리와 이미지의 역동적 관계를 탐구하는 초기 시청각 작업들로 하나하나 의미가 깊다.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주얼 뮤직센터(CVM)의 아카이브들이다.

전시의 대미는 바스쿠와 클루그의 <빛의 숨결(Breath of Light)>이 장식한다. 2018년 밀라노 디자인위크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으로 센서에 숨을 불어넣으면 상들리에처럼 투명한 조명이 차례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여러 명이 함께 불면서 체험을 공유하는 작품인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비말 감염 우려에 스태프들이 관객을 대신해 체험해 준다.

확장현실(XR) 기술로 만나는 18세기 프랑스

<퓨처데이즈(Futuredays): 시간의 공간> | 5. 22~7. 19 | 플랫폼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복합문화공간 플랫폼엘(platform L)은 확장현실



〈퓨처데이즈(Futuredays): 시간의 공간〉 전시장 전경

(XR·eXtended Reality) 전시 〈퓨처데이즈(Futuredays): 시간의 공간〉을 개최한다. 전시를 기획하고 제작한 크리에이티브 그룹 ‘프로젝트 온(Project ONN)’은 지난해 11월 〈퓨처데이즈(Futuredays): 순간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제주 사려니숲과 강릉 주문진 앞바다를 전시장에서 구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온의 대표 작가인 신준식이 18세기 말 프랑스로 관객을 데려간다. 바야흐로 정치·사회·문화를 비롯해 가치와 이념이 충돌하고 기존 체계가 완전히 전복된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다. 관객은 전시장에 비치된 태블릿PC나 본인의 스마트폰 혹은 MS 홀로렌즈를 통해 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야외 마당에 설치된 백마 조각은 맨눈으로 보면 그저 조각일 뿐이지만, 액정을 통해서 보면 눈이 내리는 설산이 펼쳐진다. 작가의 분신이자, 전시의 안내자인 아바타의 움직임을 따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면 계단에서는 둥둥 떠다니는 물체를 만날 수 있다. 아바타는 프랑스 최초 ‘공화정 체제’가 탄

생하는 그 순간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근대화 시기 프랑스를 통치한 루이 15세의 조각과 루이 오귀스트의 단두대 처형이 벌어지는 장면이 담긴 회화를 차례로 만난다.

그런가 하면 2관 전시장에서는 전시장에 들어서는 관객의 표정을 카메라가 읽고 AI가 추천하는 오르골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어 공간으로 무한대 확장하는 회화를 지나면 프랑스 초대 황제인 나폴레옹 1세를 만난다.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나폴레옹은 예의 백마 위에 올라 앉아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지만, 그 뒤로 시선을 돌리면 아심गी자 전략가, 정치 선전의 귀재이자 독재자의 그림자를 느끼게 된다. 김인현 프로젝트 온 예술감독은 “동시대 기술의 진화가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확장해 가는지, 미술 작품의 감상과 소비 변화의 양상까지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 이한빛\_《헤럴드경제》기자 사진 제공 헤럴드DB, 프로젝트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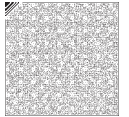


##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 필요했던 것... 덜 알려진 브론테와 울프의 이야기

책 《빌레뜨》와 《비타와 버지니아》

샬럿 브론테(1816~1855)와 버지니아 울프(1882~1941) 사이에는 70년 남짓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이후 글 쓰는 여성들의 원형이 된 작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글 쓰는 여성들이 자신들 내면의 창작 욕구를 인정하고, 일깨우고, 발휘하고, 세상에 내보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샬럿 브론테와 버지니아 울프는 영향을 드리운다. 최근 출간된 두 권의 책 《빌레뜨》 그리고 《비타와 버지니아》는 두 여성 작가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 샬럿 브론테의 실제 경험 바탕으로 한 마지막 소설

《빌레프》(1·2) | 샬럿 브론테 지음, 조애리 옮김 | 창비

《빌레프》는 《제인 에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샬럿 브론테의 마지막 작품이다. 20대 초반 여성인 루시 스노우가 라바스푸르라는 낯선 나라의 ‘빌레프’라는 도시의 여자기숙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겪는 일을 그린다. 여성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던 시대에 낯선 타국에서 삶을 개척하는 주인공을 통해 당대 독신 여성의 현실과 삶, 열망과 고뇌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빌레프》가 특히 흥미로운 것은 루시 스노우가 단순히 억압적인 상황에 분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시대에 순응하고자 하는 욕망에도 시달리는 복합적인 인물이라는 점이다. 여성의 영역은 당연히 가정으로 여겨지던 빅토리아 시대, 독신 여성이 집을 떠나 취업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서야만 하는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루시 스노우는 경제적·정신적 독립을 간절히 꿈꾸면서도, 반대로 그 독립을 두려워하는 분열된 심리를 보이는 인물이다. 젊은 독신 여성을 ‘잉여 인간’으로 취급하는 당시 시대 상황에 좌절과 고독을 느끼면서도, 한 남자의 아내로 안주하며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열망에 내적 갈등을 보인다.

소설은 실제 2년여간 브뤼셀의 기숙학교에서 수학하며 교사로 일한 샬럿 브론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하녀나 잡부로 일한 하층계급과 달리, 당시 중간계급 여성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은 가정교사나 교사뿐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하위층에 학교를 차리고 싶어 한 샬럿 브론테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유학을 떠나고, 콘스탄틴 에제 교수와 클레르 에제 부인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서 2년 동안 수학하며 영어 교사로 생활했다. 《빌레프》에는 당시 샬럿 브론테의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 버지니아 울프의 알려지지 않은 연인 ‘비타’

《비타와 버지니아》 | 세라 그리스트우드 지음, 심혜경 옮김 | 뮤진트리

버지니아 울프의 연인은 그의 곁을 30년간 지킨 남편 레너드 울프로 알려

져 있다. 레너드 울프는 아내를 돕기 위해 공무원을 그만두고 직접 출판사를 차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출판하며 그녀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울프에게는 1921년부터 울프가 세상을 떠나는 1941년까지 20년간 가까이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여성 연인, 비타 색빌-웨스트가 있었다. 울프는 죽기 몇 달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남편 레너드와 바네사 언니를 제외하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은 비타였다”고 쓰고 있다. 《비타와 버지니아》는 전기 작가이자 영국 왕실의 역사 전문가인 저자 세라 그리스트우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여성의 우정과 사랑의 교류가 남긴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울프에 비해 비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이름이지만, 영국에서는 한 해 2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시싱허스트’라는 정원을 만든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의 유서 깊은 켄트 귀족 가문의 후손이자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책을 쓴 작가이기도 했다. 1922년 울프의 형부인 클라이브 벨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둘은 첫눈에 반한다. 울프는 마음을 사로잡는 비타의 존재 앞에서 “수줍고 여학생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비타 역시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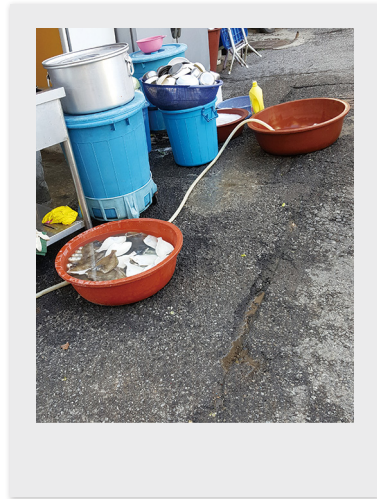
이후 비타와 울프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글을 읽고 편지로 의견을 나누며 문학적인, 그러면서도 매우 자극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울프는 비타를 만난 지 5년 뒤에 비타를 모델로 한 소설 《올랜드》를 쓴다. 책은 시대를 앞서 살았던 두 여성이 주고받은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풍부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되살려낸다.

《빌레프》와 《비타와 버지니아》는 각각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 어떤 열망이 필요했는지 보여준다.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 자신의 작가적 재능을 인정해 주는 사랑과 우정의 대상.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그들의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동력이다.

글 한소범, 《한국일보》 기자 사진 제공 창비, 뮤진트리



## 여자라는 자연 속엔 무엇이 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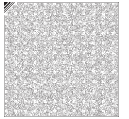
1980년대 내내 ‘여자란 누군가’ ‘왜 여자만?’ 이런 질문에 신들린 듯 사로잡혀 살았다. 여자로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면 될걸, 왜 이런 질문에 시달리며 해답을 찾겠다고 설쳐야 했을까.

‘뭘, 팔자소관이었겠지….’

지금은 이렇게 할머니다운 기분으로 생각한다. 그때 앞뒤 살펴볼 줄도 모르고 무언가 치닫다가 자빠지곤 하던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사뭇 애틋한 기분으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이해는 간다. 나름으로 ‘균형’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다.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불행감이나 열패감, 불안감 따위가 모두 깨지고 일그러지고 비틀린 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나 나름대로 진단했었다. 하여간 무엇이 되었건 깨진 건 망가진 것이고 망가진 건 고쳐야 하지 않을까. 감히 고치고 싶어 비장하게 설쳐댔던 때의 이야기다. 1980년대 중반쯤, ‘가난한 여성’을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다. 서울 서쪽 변두리에서 살다가 반대편인 동북쪽, 수유리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땐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고, 당시 ‘개발’의 혼란 모습은 빈터에 서양식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낡은 집 몇 채를 사서 부순 뒤 높이 않은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그날은 장미원 시장을 지나 건너편 우체국 옆으로 난 골목으로 해서 새로 뚫린 길로 쏘다녔다.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 가난한 건 여성’이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그 가난을 현실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더군다나 나로 말하자면 부자였던 적이 없어서 부자들의 가정 내 위계는 상상을 못하고 그저 중산층 이하의 가정으로만 상상력이 가닿는 처지긴 했다.

이런 나의 눈에 확 끌리는 집이 보였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들 사이, 맨 아래 칸에 자리한 초라한 밥집이었다. 간판은 없고 가게 앞에 커다란 갈색 고무 대야에서 물이 흘러넘치고 양념이 불은 그릇들과 냄비들이 그 옆에 쟁여 있었다. 일손이 부족해 보였다. 그렇지 않다면 설거지거리를 저리 돌리는 없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나보다 좀 어려 보이는 형클어진 파마머리의 여자가 안에서 나왔다. 피로가 덕지덕지 붙은 표정이었다. 우리는 처음인데도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뭐 드시려고요?”

내게 물었다. 나는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는 고무 대야 앞에 허리를 잡고 앉아 빠르게 그릇을 씻었다. 나는 냉큼 그 옆에 앉아 비누칠이 된 그릇들을 행귀 소쿠리에 얹었다. 여자가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심심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대야 옆에는 대충 신문지를 덮어놓은 대파가 있었다. 물어보지도 않고 뿌리를 자르고 다듬어 씻었다.

“아이고 일을 잘하시네요.”

여자가 말했다.

“이런 건 일도 아니죠.”

그가 나를 밀어내지 않는 게 좋아서 마냥 기뻐했다.

가게는 작았다. 문을 열면 긴 나무 탁자가 두 겹 세 개 놓였고 탁자 앞뒤로 여러 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나무 의자가 있었다. 가스레인지가 놓인 주방과 주모가 움직이기 빠듯한 공간 옆에 칸을 막지 않은 구들방이 보였다. 탐정이나 형사처럼 재빨리 현장을 살핀 내게 순진하고 마냥 착한 표정의 여자가 국밥 드시지요? 물었다. 마주친 눈길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구들방이 마주 보이는 곳에 앉았다. 이불을 둘둘 말아 벽에 붙여놓은 것 같은 크고 긴 것이 보였다. 그것이 사람일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 나는 의자 한 귀퉁이에 앉아서 갓 칠한 듯 하얀 회벽에 가슴골이 깊게 파인 수영복 차림의 여자가 거품이 인 맥주잔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이 인쇄된 광고에 여러 마리의 파리가 붙었다 날곤 하는 걸 바라보았다.

이때 중년쯤의 아저씨가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초췌하고 주눅 든 인상이었다. 그는 단지 소주 한 병만을 시켰다. 소주 한 병을 비우는 동안 각두기를 두세 번, 국물도 얻어먹었다. 여자는 종종걸음을 치며 순댓국을 커다란 냄비에 담고 밥도 퍼서 고무 대야에 담았다. 빈 국 그릇 밥그릇들이 대야 속에 얹어져 있는 속에 수저와 젓가락을 와르르 던져 넣었다. 밥그릇을 앞에 두고 여전히 깨작거리는 내게 근처 집짓는 곳에 새참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빠르게 말했다.

“금방 와요. 바로 옆이니깐요.”

덧붙였다. 남자 손님은 계산을 하고 나갔다.

“저는 그냥 있을게요.”

내가 말했다. 여자가 순진하고 단순한 웃음을 웃어 보였다.

오후 서너 시 무렵의 국밥집은 한가했다. 구들방의 커다란 이불더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미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여자가 맨손으로 금방 왔다.

“야야! 이년아! 밥 줘!”

갑작스러운 고함이었다. 이불더미가 꿈틀하는가 싶었는데 잠긴 목소리가 먼저 공간을 흔들었던 것이다. 곤혹스러움에 두려움까지 끼쳤다. 여자가 밥을 차리는 동안 예닐곱 살은 넘어 보이는 남매가 들어와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마루 위로 내던졌다.

“아빠 또 술 마셨지!”

딸아이가 소리쳤다. 아빠가 딸을 향해 눈을 부라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다음 날부터 이 집으로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했다. 식당 일을 배우려는 거냐고 여자가 먼저 물었고 나는 그냥 웃었다. 가서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근처 공사장으로 새참을 나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자는 일하지 않았고 아내를 이년저년 불렀으며 내겐 더러워 보이는 눈빛을 보냈고 말도 걸었다.

《절반의 실폐》에 실린 〈목숨앗이〉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글·사진 이경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 당신은 어디에서 <강>을 접했나요?

‘<강> 열풍’으로 본 미디어 흐름의 지각변동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비의 <강> 신드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이 돼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TV를 차단한 채 살지 않고서야

비의 <강>이라는 노래와 안무가 새삼 인기라는 것 정도는 풍문으로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시대적인 가사와 과장된 의상, 안무를 조롱하는 댓글이 유머로 박제돼

대중에게 확산된 이 특이한 유행은 2020년의 미디어 활용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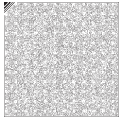
유튜브발 새로운 신드롬의 주인공이 된 가수 비의 2017년 발표곡 <강>

## 당신이 <강>을 만나게 된 경로

과거 발매된 곡이 뒤늦게 진가를 인정받거나 드라마 OST 등을 통해 발굴돼 역주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비의 <강>은 좀 다르다. 시대를 앞서 나간 명곡이라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놀림을 받다가 유머 ‘밈

(meme)’(온라인상에서 패러디되는 요소)이 된 경우다.

일단 당신이 <강>을 어디에서 언제 처음 접했는지에 따라 미디어 활용도를 짚어볼 수 있다. 2017년 12월 발매된 비의 앨범 <MY LIFE愛>에 수록된 <강>이 ‘숨듣명’(숨어서 듣는 명곡)이라며 인기 유튜브 채



널 '문명특급'에 소개되고, 유튜브들이 비의 '꼬만춤'을 패러디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비의 무대 영상에 놀리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년도 더 된 일이다. 그 전설의 시작에는 <강>보다 먼저 발매된 불세출의 명곡 <차에 타봐>가 있다. 감히 '내 여자'를 탐한 상대 남성을 때리고 싶으니 차에 타보라고 협박하는 이 폭력성 짙은 곡의 가사가 <강>보다 먼저 화제가 됐다. <차에 타봐>와 <강>을 유튜브에서 1년 전에 접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구독자가 20만 명 이상인 인기 유튜브를 여럿 구독하는 헤비유저일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을 통해 현재의 인기 영상을 AI에게 추천받았을 것이다.

혹은 당신은 '1일1강' 나 '비'효과와 같은 유행어를 인스타그램에서 카드뉴스를 통해 접했을 수도 있다. SNS에는 언론사와 광고대행사들이 운영하는 계정이 많은데 그들은 요즘 유행하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발행한다. 그 계정을 팔로잉하지 않더라도 '돌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광고비가 책정된 '트렌드 짚어주는 뉴스' 계정들이 상위 노출된다. <강>이라는 노래 제목도 생소한데 거기에 '1일1강 하시나요?' '여고생이 따라 한 비의 꼬만춤' '비의 영상에 김태희가 남긴 댓글'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본 당신은 홀린 듯 그것을 읽게 된다. 유튜브와 SNS가 아니라면 그 다음은 인터넷 포털 뉴스가 있다. 포털 인기 뉴스에는 '비 드디어 새우깡 모델 된 사연' '비의 <강> 3년 만에 역주행?' 등의 기사가 올라오고, 인기 검색어에는 '1일1강' '놀면 뭐하니' 등이 순위권에 있다. MBC TV <놀면 뭐하니>에 비가 출연해 유재석·이효리와 함께 꼬만춤을 춘 사연 등의 기사도 도배돼 있으므로 이제 당신은 비의 <강>이 무엇인지, 그가 왜 뜬금없이 옛날 노래로 <놀면 뭐하니>에 나왔는지, 어쩌다 새우깡 광고모델로 발탁됐는지 알게 된다.

자, 그리고 너무 바빠서 포털 뉴스조차 보지 않는다면 이제는 가장 올드미디어인 TV를 통해 <강>을 접하는 수가 남아 있다.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직접 비의 회사까지 찾아가 <강>의 역주행에 대한 감상을 물으며 그를 놀리는 댓글들을 면전에서 읽어주기까지 했다. <놀면 뭐하니>를 보지 않더라도 다수의 예능에서 꼬만춤이나 <강>의 춤을 패러디하기 때문에 그 노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 유튜브, SNS, 포털 뉴스조차 보지 않고 TV도 안 본다면? 그런데 매일 접속하는 음원사이트의 차트에 갑자기 박재범과 식케이, 김하운 등 힙합가수들이 리믹스한 <강>이 1위로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전 우

주가 "이 노래 좀 들어보라"고 추천하는 것 같다. 디지털 사회 속 당시는 '유행'이라는 이름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어디에서 언제 해당 콘텐츠를 접했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시대착오적인 가사와 과장된 마초이즘 때문에 조롱받으며 유행이 된 비의 2014년 곡 <차에 타봐>나 <강>을 유튜브에서 접했다면 놀리는 댓글들까지 함께 유머로 소비하게 된다. 당시에는 멋지다고 생각하며 만들었을 그 노래가 지금 들으니 왜 부끄럽고 웃긴지 유튜브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 방송에서 순화된 버전의 무대와 멋지게 리믹스한 노래만 접한 사람들은 그게 정말 좋은 노래인데 뒤늦게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모든 뉴스가 'میم'의 탄생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는다. 더구나 원본 영상 밑에 달린 조롱 댓글들을 자세히 읽어주는 것은 실존 인물에게 미안한 일이다. 유머는 설명되는 순간부터 재미가 휘발된다.

### 유행의 생산 주체, TV에서 유튜브로

과거에는 유행이 TV 방송에서 비롯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방송 장면을 SNS가 퍼 나르고, 유튜브가 패러디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브에서 발굴된 영상들이 인기를 얻어 뒤늦게 TV에 소개된다. 구독자 수 100만 명 이상을 거느린 유튜버들은 이제 방송 제작진에게 섭외 0순위의 출연자다. 공공재인 전파 송출을 이용해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던 올드미디어 TV가 트렌드를 가장 뒤늦게 쫓아가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TV에서 시작된 유행은 세대를 불문하고 쉽게 전 국민에게 주입되는 반면, 유튜브에서 시작된 유행이 TV까지 오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TV는 같은 영상을 일 방향으로 대중에게 송출하지만 유튜브는 다르다. 유튜브는 구독자 개개인마다 다른 채널의 홈이나 영상을 보고 있다. 개인 성향을 반영해 시가 영상을 추천하기 때문에 나이와 취향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영상을 노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디어는 '유행'을 만들고 싶어 하며, 끊임없이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는지' 찾는다. 시대에 뒤쳐진 듯한 허세 가득한 가사를 재미삼아 놀리던 것이 댓글 놀이가 되고, 네티즌들의 유희가 되어 TV에 소개되며 비의 '새우'깡' 광고로까지 이어지는 미디어믹스 시대. 유튜브-인스타그램-TV-광고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그들 모두 트렌드라는 미망을 쫓는다.

글 김승희,《빅이슈코리아》편집장



## 청중이 작품을 완성한다는 마음가짐

코로나19 시대에 곳곳한 ‘합신악과 심포니 송’의 행보



코로나19는 문화에 재앙이다. 철회는 공연계가 직접 맞았다. 올 상반기 수많은 공연이 취소됐다.

객석 간 거리 두기를 넘어 연주자 간 거리 두기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인원 수가 줄었다.

시립교향악단이 아니라 ‘시립 실내악단’이라고 부르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교육지책으로 무관객 라이브 스트리밍을 택하는 공연도 늘었다. 투입되는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작은 모니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공연의 집중도는 한계가 있다. 보통 20분을 넘기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와중에 묵묵히 공연을 계속 열어 코로나19를 정면 돌파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예술감독 합신익이 이끄는 ‘심포니 송’이 그 주인공이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Symphony S.O.N.G,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은 이니셜에서 보듯이 ‘노래’라는 의미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라는 뜻을 지닌 민간 오케스트라다. 심포니 송은 2월 베토벤의 걸작 <장엄미사>를 시작으로 5월 포레 <레퀴엠>, 6월 베토벤 교향곡 1번과 피아노 협주곡 4번 등을 ‘마스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완성도 높게 펼쳐냈다. 비슷한 시기 국공립과 민간 구분 없이 오케스트라들이 공연을 취소하거나 축소 또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한 것을 생각하면 용감한 행보였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 세상이 잠시 멈춘 때 연주된 베토벤과 포레

먼저 2월 23일 예술의전당에서 연주된 베토벤 <장엄미사>는 베토벤 최후의 역작으로 손꼽힌다. 자주 공연되진 않는 작품이라 기대가 컸다. 때는 코로나19로 전국 공연장이 ‘올 스톱’하기 직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마스크 쓴 얼굴로 접하는 무대가 약간 어색하게 다가왔지만 감동의 정도가 스트리밍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컸다.

첫곡 <키리에>에서 국립합창단과 테너 신상근, 소프라노 박하나,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바리톤 김기훈, 다시 국립합창단이 번갈아 가사를 새겼다. 이어진 <글로리아> 끝부분에서 돌고 도는 정교한 푸가는 베토벤의 장인정신을 말해줬다. 조용한 목관 전주로 시작된 <상투스>에서 독창자들의 여린 노래와 4중창이 안개처럼 깔렸다. 이후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는 관현악의 역주와 화려한 가창이 돋보였다. 특히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곁들여진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에서 키 큰 악장 로드리고 푸스카스의 바이올린은 천상의 선율이었다. 마지막 <아뉴스 데이>에서는 “자비를,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를 애절하게 노래하는 테너 신상근의 가창이 빛났다.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이런 작품은 역시 실제 연주로 들어야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5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프랑스 로맨틱 음악의 향연’이란 제목으로 공연했다.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와 카미유 생상스의 색채감 풍부한 작품들을 화려하게 펼쳤다. 포레 <파반느> Op.50은 파스텔 톤의 빼어난 멜로디로 조금씩 물들듯 감명을 줬다.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등장,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를 연주했다. 1악장에서 피아노와 관현악은 파고를 높이고 낮추며 입

체적인 협주의 진수를 들려주었다. 2악장은 나일강의 잔잔한 물결을 조용히 가르며 나아가는 파라오 배를 떠올리게 했다. 가볍고 화려한 3악장에서 박종해 특유의 폭발적인 타건이 발휘됐다. 앙코르인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6번은 과감하고 압도적이었다. 눈앞에서 펼쳐진 현란한 연주에 보내는 청중의 갈채엔 감탄이 섞여 있었다.

2부의 포레 <레퀴엠>에서 국립합창단원들과 심포니 송, 소프라노 양지영과 바리톤 공병우 등 무대를 가득 채웠지만 순도 높은 집중력으로 정갈함이 전달됐다. 밤새 눈 온 날 마을의 아침을 떠올리게 했다. 작품 이외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듯 고요함만이 남은 무대에서 합창 소리가 들렸다. 입당송과 봉헌송을 거쳐 상투스의 합창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피에 예수>의 풍부한 소프라노 독창은 위안을 주었고, <리베라 메>의 정연한 바리톤 독창과 합창에 가슴이 벅찼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낙원에서>를 들으며 언젠가는 이 코로나19도 끝날 거란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했다.

### 예술은 계속된다는 결연한 의지

최근 접한 이들의 공연은 6월 1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베토벤 페스티벌>이었다. 이날은 목관악기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오보에가 뚜렷했고, 플루트가 청아하게 울리며 청감을 자극했다. 국내 악단에서는 듣기 힘든 높은 수준이었다. 덕분에 고전주의의 향취가 남아 있는 교향곡 1번을 단아하게 잘 해석했다. 2부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은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인 유영욱이 협연했다. 1악장에서 섬세함과 담대함을 넘나들더니 2악장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듯한 베토벤의 의연함을 돋보이게 했다. 약간 빠르게 해석한 3악장까지 믿음직한 연주를 선보였다. 유영욱은 독주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와 슈만 <헌정> 편곡까지 유창한 연주로 앙코르를 선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공연장에 불안감이 퍼지는 요즘, 문진표 작성과 체온 확인, 객석에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행보가 조용히 주목받고 있다. 공연은 청중이 함께 만드는 예술작품이란 걸 요즘처럼 절감한 때가 없다. 청중 한명 한명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공연장을 찾을 때 안전하게 공연예술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글 류태형\_음악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함신익과 심포니 송



## 칠흑 같은 파경, 찬란한 복수

아리 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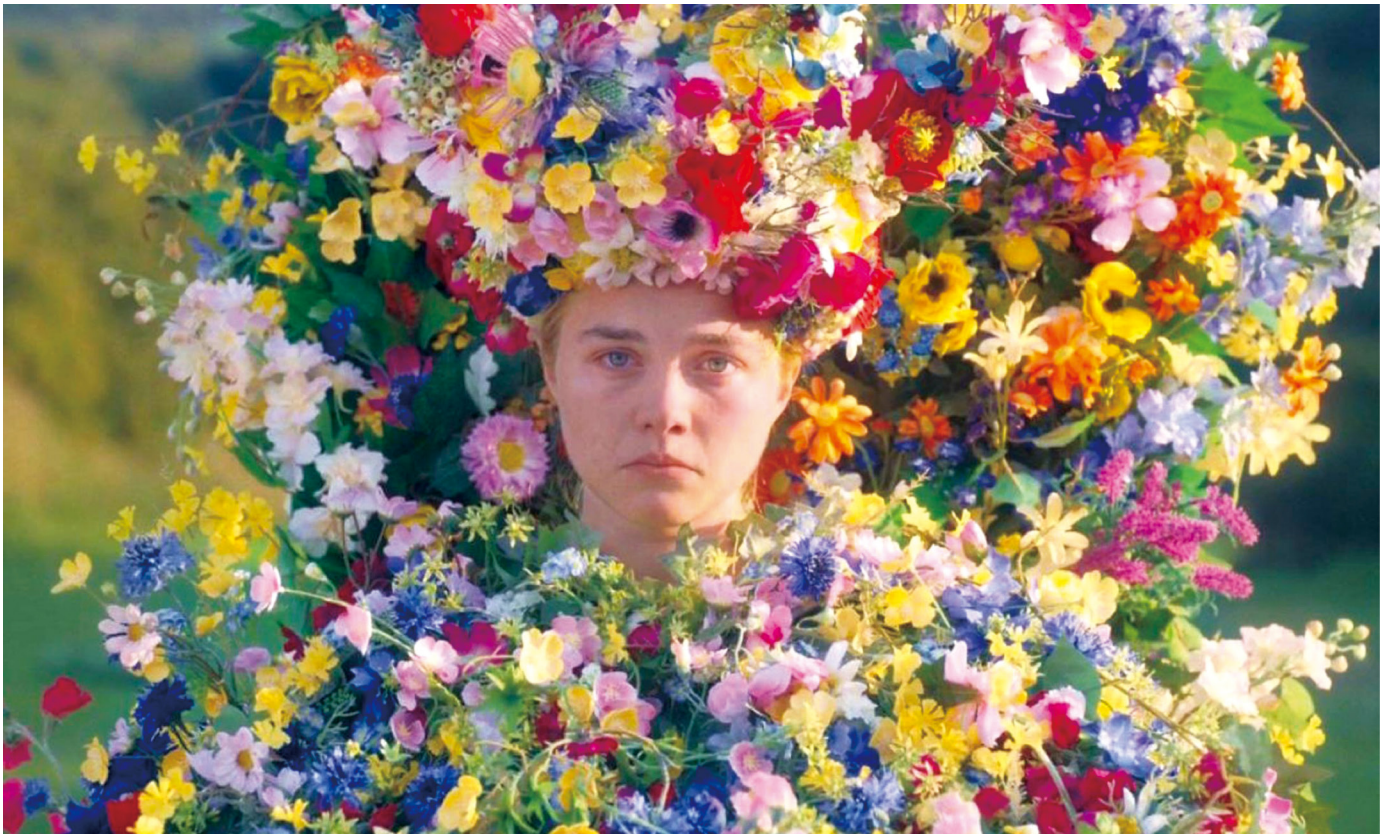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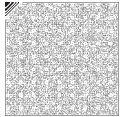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처럼, 공감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개념이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충분히 나의 감정을 공유했다고 느끼면 큰 위로를 받는다. 반대로 나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감정을 상대방과 충분히 공유하고 위로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서운함이 얼룩처럼 남는다.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은 흉이 되어 마음을 못나게 만든다.

※이 글은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 그 공감의 위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 <미드소마>는 대낮에 비행기를 탄 줄 알았는데, 깨고 보니 잠수함 속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주는 영화다. 전작 <유전>(Hereditary, 2017)을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아리 에스터 감독은 공포라는 장르를 이용해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자신만의 장르에 싹을 틔운 것처럼 보인다. 이 영화는 얼핏 보면 이방인들이 겪는 단순한 집단 공동체에 관한 공포영화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공감이라는 정서를 바탕에 깔 지독한 멜로다.

주인공 대니는 가족 문제로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에게 평소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과 그의 친구들은 대니의 집착을 지긋지긋해 한다. 동생이 부모님을 죽이고 자살해 버린 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대니는 크리스티안에게 의존하지만, 그에겐 의무감만 남아 있다. 문화인류학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인 크리스티안은 스웨덴 출신 친구 펠레의 제안으로 친구 마크·조시와 함께 펠레가 살았던 마을 공동체(호르가)의 하지 축제를 탐방하기로 하고, 대니가 동행한다. 하얀 옷을 입은 마을 사람들과 세상 평온한 자연 속에서 아픔도 갈등도 없어 보이던 마을은 기묘할 정도로 엄격한 규칙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니와 일행이 낯선 이방인이 돼 들어간 호르가 마을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다양한 악행이 율법이 돼 유지되는 곳이다. <미드소마>는 얼핏 낯선 풍습으로 유지되는 공동체 속에 스며든 이방인들이 폭력에 길들고,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동화돼 가는 과정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영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니를 중심으로 보면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마을의 풍속과 상대방의 정서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는 전통은 큰 위안이 된다. 그래서 결국 대니는 동행한 친구들이 달아나려 한 것과 달리 자신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유사 가족 같은 공동체의 정서에 동화된다. 유일하게 의지하던 크리스티안은 끝내 자신을 배신하지만 호르가 마을의 여인들은 그녀의 슬픔에 동화돼 한마음으로 통곡해 주었기 때문이다.

## 공감하지 못한 자에 대한 복수

아리 에스터 감독은 한 마을의 잔혹한 제의 속에 묶이고야 만 이방인들을 통해 활짝 펼쳐져 있지만, 감옥 같은 광야의 폐쇄성을 강조한다. 긴 상영 시간에 비해 공포의 밀도가 낮은 이야기는 그 속도가 무척 느리다. 잔혹하고 잔인한 공포를 원하는 관객에게 <미드소마>는 무척 불안정하고 어정쩡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의지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대니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보면 <미드소마>는 변변치 못한 남자친구를 그제야 버리고 오롯이 독립하는 성장 멜로다.

사실 대니 일행이 초청받은 호르가 마을 축제는 9명의 제물을 고르기 위해 열리는 축제였다. 외부인 네 명과 마을 사람 네 명, 그리고 '5월의 여왕'이 선택한 한 사람이 마지막 제물이 된다. 5월의 여왕이 된 대니에게 크리스티안을 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하지만 대니는 크리스티안의 죽음을 선택한다. 뼈곡하게 쌓인 대니의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장면은 서늘하지만 그럴듯한 복수처럼 보인다. 결국 <미드소마>는 파경을 맞이한 한 여인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내는 지독한 성장 멜로다. 회한의 감정에서 벗어난 대니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마지막 미소는 그래서 처연하고 아프다.

p.s. <미드소마>는 상영 시간이 147분인 일반판과 171분에 달하는 감독판으로 각각 개봉됐다. 일반판은 미스터리 호러에 가깝다면, 대니 내면의 울렁임을 더 내밀하게 바라보는 감독판은 잔혹 멜로에 가깝다. 본 리뷰는 감독판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 <미드소마>(Midsommar, 2019)

감독 아리 에스터

출연 플로렌스 퓨(대니 역), 잭 레이너(크리스티안 역), 윌 풀터(마크 역), 윌리엄 잭슨 하퍼(조시 역), 빌헬름 브롬그렌(펠레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0%, 소득공제 40%

# 간편하다!

# 제로페이 서울

## PC·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신청도 간편하게!

### 1 제로페이 홈페이지 검색

zeropay.or.kr



※ 유사 사이트(zeropay.co.kr) 주의

### 2 회원가입

'가맹점 등록 확인' 조회 ▶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입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업로드

## 소비자는 QR코드로 결제도 손쉽게!

### 1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의 결제 앱 설치

·설치 후, 결제계좌 등록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기존 앱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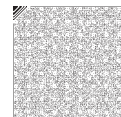
### 2 간편결제 앱에서 가맹점 QR코드 촬영

### 3 결제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확인



소상공인 돕고!  
소득공제 받고! **제로페이서울**  
※ 가맹점 신청: zeropay.or.kr





---

# WEBZine<sup>+</sup>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http://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http://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http://choomin.sfac.or.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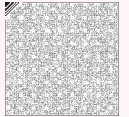


## 당신의 일



〈쓰다〉30호 포스터

얼마 전 동네 책방에 들러 최은미 작가의 이름을 찾아 근작을 한 권 구매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 발간된 《어제는 봄》이었다. 첫 장을 펼쳤고 중간에 덮을 수가 없어 내쳐 읽었다. 앞으로도 최은미라는 이름을 발견하면 나는 책을 사겠구나 생각했다. 이 작가가 포착하는 일상적인 대낮의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듯한 섬세한 문장은 또 얼마나 기막히게 좋은지. 이 평화가 흔들릴 거라는 조그만 암시에도 나는 덜덜 떨며 책을 읽었다. 최은미는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마주하는 공포를 그린다. 그러니까 단지 소설 속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의 내가 겪었을 혹은 몇 달 후에 내가 겪을 만한 일을 가장 섬뜩한 문장으로 옮긴다. 책을 읽어가며 나는 상황을 상상했다기보다 경험하는 느낌이었다. 《어제는 봄》 중에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을 소개한다.



나는 소파에 구겨져 있는 윤지옥의 바지를 집어 윤소은한테로 내던진다. 소리 지른다. 거실이 니 놀이방이야? 인형들을 걸어찬다. 빈정댄다. 꼬투리를 잡는다. 그러다 변명하고, 내가 죽을까? 내가 죽으면 정신 차릴래? 위협한다. 인생 너무 뻘해! 예언한다. 윤소은이 내 말 폭탄을 뒤집어쓰고, 그 큰 눈에 겁을 집어먹고 떨면서, 굵은 눈물을 견잡을 수 없이 똑똑 흘린다. 나는 니가 얼마나 좋은지. 나한테 타격을 입는 니가. 내 말 한마디에 베이고 마는 니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최은미, 《어제는 봄》부분

윤지옥은 주인공의 남편이고, 윤소은은 딸이다. 주인공 수진은 남편에게 애정이 없으나 딸은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나 딸에게 사랑을 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은 엄마는 딸을 두고 한 다짐들에 번번이 실패한다.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다. 인용된 부분에서와 같이, 수진은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하다가 관계를 완전히 망쳐 버릴지도 모른다. 수진은 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소은에게 솔직한 애정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 미루어둘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애정을 보여주기는커녕 수진은 딸의 감정을 마음껏 휘두르고, 딸이 자신에게 느끼는 공포 앞에서 위안을 느끼기도 한다. 소은이 감당하고 있는 불안이 얼마나 처절한 것일지 생각하면 수진의 태도는 분명 문제적이다. 가족 간의 긴장만큼 일상에 치명적인 감정노동이 또 있을까 싶다. 내가 보기에 수진이 특별히 나쁜 엄마는 아니다. 어쩌면 많은 부모가 소설 속 수진처럼, 자신의 아이에게 부모의 감정을 감당할 것을 강요한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섬뜩한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한 달 전이었다. 지금도 겨울이지만 한 달 전 역시 겨울이었다. 그날 나는 퇴근길에 어떤 여자의 만두를 훔쳐 먹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그 일을 잊지 못했다. 에이포 용지 두 장 분량으로 그 일을 쓰기까지 했다. 나는 왜 자꾸 현금이 필요해지는 걸까.

최은미, 《이상한 이야기》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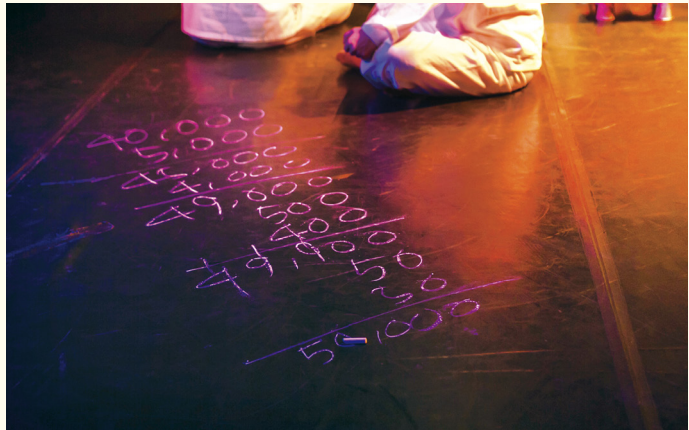
〈쓰다〉 30호에 실린 최은미의 소설은 위와 같이 시작한다. 겨울, 주인공은 누군가의 만두를 훔친다. 그리고 곧 만두 주인과 마주친다. 그가 만두 주인과 만두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을 보면서 독자는 주인공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가 저 민망한 상황에서 어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되기까지 한다. 최은미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에피소드를 통하여 가난이 인간의 감정과 태도를 얼마나 왜곡하는지 드러낸다. “나는 왜 자꾸 현금이 필요해지는 걸까.” 현금 쓸 일 많은 가난한 일상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요약하는 문장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상한 이야기〉는 짧은 소설이다. 이 짧은 이야기가 남기는 긴 여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오래 생각했다. ‘만두’라는 글자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와 진한 음식 냄새가 주인공이 겪고 있는 오랜 허기를 자꾸 생각하게 했다. 속이 꽉 찬 만두, 맛있고 값싸고 쉽게 포만감을 주는 만두가 주인공의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앓아간 것인지 나는 자꾸 섬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나의 일처럼.

글 김잔디\_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 달달한 밀크커피의 웃기게 슬픈 탈주(fuite)

작당모의 <무릎을꿇었는데거드랑이가따꼼하여>



<무릎을꿇었는데거드랑이가따꼼하여> 공연 모습(사진 제공 작당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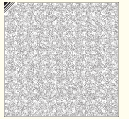
소름 돋게 즐거운 이 상상놀이의 발단은 그 300원짜리 자판기 밀크커피였다. '나'라는 예술가는 본래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셔야 눌렀던 감정이 움찔대고 막혔던 상상이 기지개를 펴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필 오늘따라 수중에 있는 동전이 300원이 안 된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뒤진다. 가방 구석구석을 털어보고, 앞에 잔뜩 벌여놓은 작업들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본다. 여기서 50원, 저기서 10원. 그래도 여전히 모자란다. 그 와중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무려 세 잔이나 뽑아 하나는 입에 물고 둘은 양손에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부럽다.

### 그 밀크커피 한 잔이 대체 뭐길래

달달한 커피 맛이 땀 무대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300원을 만들고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와 그에 맞춰 진행되는 온갖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속적으로 출렁댄다.

이러테면 이런 것이다. 기차가 들어오는 하얼빈 역,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는 안중근이 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난데없이 믹스커피가 끼어든다. 안중근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신사임당이 오만 원짜리 지폐에서 걸어 나와 자기보다 '잔돈'인 세종대왕, 율곡 이이, 이순신을 불러낸다. 그런가 하면 100원짜리 동전 앞면의 이순신은 뒷면의 거북선을 데리고 냉큼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다. 그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에 잠기는 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커피 때문이다. 제목 그대로 굶은 것은 분명





무릎인데 겨드랑이가 따끔한, 전혀 앞뒤 맥락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이야기들이다. 이야기와 이야기가 서로 얹히면서 계속해서 사방으로 튀어 나가다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다. 주어도 술어도 서로의 관계를 비틀고, 인물의 경계도 사라지며 공간과 시간도 사방으로 확장된다.

‘자판기’와 ‘밀크커피’ ‘나’ 사이의 은유적 지형이 대충 무엇일지 조금씩 감을 잡는 즈음, ‘나’가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세상이란 자판기가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세상 자판기 사이에서 헤매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랴. 그러나 처음부터 나를 예술하는 ‘나’로 명시하고 출발한 것으로 보아, 이 공연은 애초 보편 인간의 존재론을 운운할 생각은 1도 없었던 게 분명하다. 그보다는 각종 지원서의 ‘300원’짜리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이리저리 찌고 다듬느라 고군분투하는 지금/여기의 연극하는 누가 더 명징하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대체 그 자판기 커피가 뭐라고... 이런 한탄스러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이들은 본 공연의 안내 전단지에서 이렇게 써놓았다.

커피, 프리마, 설탕의 황금비율 1:1이며,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맛의 우직함이며,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가성비, 커피 자판기의 육중한 풍채, 무엇보다 자판기가 오롯이 나만을 위해 내놓았다는 ‘정성’까지.

‘밀크커피’의 숭고한 우아함에 대한 존경과 거기에 달고자 하는 열망이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사실은 맞은편 벽에다가 그 이상으로 밀크커피에 대한 조롱과 냉소를 뱉다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원금이라는 ‘밀크커피’가 아니면 쉽게 창작의 동력을 만들 수 없게 되어버린 이 땅에서 고단하게 연극하며 살아가는 무수한 ‘나’에 대한 자기 패러디, 연극에 대한 열망만으로 버티기 힘든 연극계의 우울한 지형에 대한 웃기게 슬픈 이 자기 서사. 소름 돋게 공감하는 순간, 그와 동시에 ‘작당모의’의 이 유쾌하게 치밀한 괴물스러움에 화들짝 놀란다.

### 자판기와 ‘나’ 사이

이 무대는 ‘나’라는 예술가의 창작 공간이며 동시에 사업지원서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무대 한 켄의 ‘자판기’와 이야기 안으로 계속 파고드는 ‘밀크커피’가 무엇을 은유하는 것인지도 점점 분명해진다. 자판기의 그 ‘300원’에 맞추느라 무대의 ‘나(김용희)’는 이미 여러 개의 ‘나’로 분할되어 버렸다. 무대 바닥에 차곡차곡 놓인 조그만 그림판들 위에 모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 ‘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공연은 밀크커피의 떨칠 수 없는 유혹, 자판기의 300원짜리 그 응시 앞에서 절대 자괴감에 빠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밀크커피 맛이 간절하겠지만, 그로 인해 한국에서 연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고단하겠지만, 이들에게는 그 고단함을 유쾌하게 절단하고 그 안에 출렁이는 힘을 밖으로 꺼내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힘이 보인다. 스스로를 탈영토 화해 자발적 기표가 된 이들이 생성해 내는 리듬이 어느 순간 커피 자판기를 찌! 하고 비웃는다. 밀크커피에 대한 간절함이 은유를 넘어 환유로 뿔어나갈 힘이 보인다.

글 이경미, 연극평론가. 한 편의 연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극장, 저 극장을 기웃댄다. ‘잘 만든’ 연극보다는 꿈틀대는 파동이 느껴지는 연극을 좋아한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도 제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변의 많은 것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집합체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제가 죽고 나면 누군가 정해 주지 않을까요?(웃음) 공연은 창작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리지만, 관객들은 자신이 담아가고 싶은 것만 담아가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하잖아요. 공연과 마찬가지로 제가 저에 대해 스스로 정의하는 것 보단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정의해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 Q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미싱 공장이었던 곳이고, 지금은 제 연습실이에요. 직접 다 수리 했어요. 누군가 이곳이 꼭 저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웃음) 처음에는 이곳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라고 하려 했는데,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네요. 도피처라기엔 현실을 정말 자주 마주하고 있거든요.

작당 모의하는 곳?(웃음)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에서 허클베리 핀이 집 근처 숲속에 오두막집을 지어두고 친구들과 온갖 작당 모의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여기서 연습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해요. 최근에 여기서 아이들 생일 파티를 했는데 여기저기 어질러놔서 이걸 언제 다 치우나 한숨 쉴 적도 있어요.(웃음)

## Q 여기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이곳에서 춤은 수도꼭지처럼 정해진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어떨 때는 별안간 이상한 곳에서 나오기도 해요. 나오던 곳에서 안 나온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확실히 관심을 가지는 곳에서부터 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책에 관심을 가졌다가 책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자는 게 좋아서 온종일 자다가 자는 동작에서 발견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되도록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 채워두려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이 서로 안 어울리죠.(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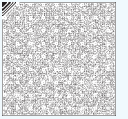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김설진은 무버(Mover)의 예술감독이다. 대부분 왜? 그런가? 꼭? 글썄? 라는 질문으로 작업을 시작하며, 사람을 생각할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술을 삶에서 발견하고 삶을 '예술'과 다르게 살고 싶은 까닭일까?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내동 연습실 ©Kenn. 김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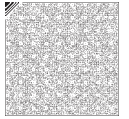


# 07

##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Mon                                                                                                                                          | Tue                                                                                                                                                                                          | Wed                                                                                                                                                                                                                       |
|----------------------------------------------------------------------------------------------------------------------------------------------|----------------------------------------------------------------------------------------------------------------------------------------------------------------------------------------------|---------------------------------------------------------------------------------------------------------------------------------------------------------------------------------------------------------------------------|
|                                                                                                                                              |                                                                                                                                                                                              | <b>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무용) 선정작 발레STP협동조합 &lt;발레갈라 더 마스터피스&gt;(~7.2)</li> <li>● 연극 &lt;열 두 대신에 불리러 갈 제&gt;(~7.5)</li> <li>● &lt;폴리처상 사진전&gt;(~10.18)</li> </ul>        |
| <b>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시각) 선정작 갤러리 유진목공소 &lt;2020 갤러리 유진목공소 온라인 전시회&gt;</li> </ul> | <b>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개와 고양이의 시간&gt;(~9.20)</li> </ul>                                                                                                   | <b>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2020 서치라이트&gt;(~7.18)</li> <li>● (온라인) 융복합 예술분야 신규 지원모델 설계를 위한 온라인 공청회(가칭)</li> <li>● 뮤지컬 &lt;잃어버린 얼굴 1895&gt;(~7.26)</li> <li>● 뮤지컬 &lt;더 모먼트&gt;(~9.6)</li> </ul> |
| <b>13</b>                                                                                                                                    | <b>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The Trees: 김성국&gt;(~7.14)</li> </ul>                                                                                               | <b>1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제7회 신진연출가전 당선작 &lt;아르바이트&gt;(~7.19)</li> <li>● 2020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연극 &lt;죽는 장면&gt;(~7.16)</li> </ul>                                                       |
| <b>20</b>                                                                                                                                    | <b>21</b>                                                                                                                                                                                    | <b>22</b>                                                                                                                                                                                                                 |
| <b>27</b>                                                                                                                                    | <b>2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문학) 선정작 문학살롱 초고 &lt;판데믹 미시사-문학 주체들의 일상으로부터&gt;</li> <li>● 전시 &lt;Sharpness_작업의 온도&gt;(~7.28)</li> </ul> | <b>29</b> <p><b>만가잇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시간(TIME): 정미정&gt;(~7.29)</li> </ul>                                                                                                          |



| Thu                                                                                                                                | Fri                                                                                                                                                                                                                                                                                                                                                                                    | Sat                                                                                                                                                                                                                                                                                                                  | Sun                                                                                                                                                                                                                                                                                                 |
|------------------------------------------------------------------------------------------------------------------------------------|----------------------------------------------------------------------------------------------------------------------------------------------------------------------------------------------------------------------------------------------------------------------------------------------------------------------------------------------------------------------------------------|----------------------------------------------------------------------------------------------------------------------------------------------------------------------------------------------------------------------------------------------------------------------------------------------------------------------|-----------------------------------------------------------------------------------------------------------------------------------------------------------------------------------------------------------------------------------------------------------------------------------------------------|
| <b>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연극 &lt;이카이노의 눈&gt;(~7.12)</li> </ul>                          | <b>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적 밴드 시점 &lt;임현일-BREATHE&gt;</li> <li>● 가족뮤지컬 &lt;봄날의 꿈&gt;(~8.30)</li> </ul>                                                                                                                                                                                                                                                       | <b>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음악) 선정작 주식회사 플러스 히치 &lt;Play Blue Note Masterpiece&gt;(~7.18)</li> <li>● (온라인)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다원) 선정작 희망의노래꽃다지 &lt;꽃다지 콘서트 '착한 사람들에게'&gt;</li> <li>● 뮤지컬 &lt;전설의 리틀 농구단&gt;(~8.30)</li> <li>● 뮤지컬 &lt;제이미&gt;(~9.11)</li> </ul> | <b>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lt;엑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gt;(~7.5)</li> <li>● 전시 &lt;새로운 상점: 전소정&gt;(~7.5)</li> <li>● 전시 &lt;민주주의의 봄&gt;(~7.5)</li> <li>● 연극 &lt;돼지떼&gt;(~7.5)</li> </ul>                                                                                  |
| <b>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가죽이 함께 듣는 영화음악회</li> <li>● 전지적 밴드 시점 &lt;노리플라이-우리의 여름&gt;</li> </ul>            | <b>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lt;라스트 세션&gt;(~7.10~)</li> <li>● 전시 &lt;불혹, 미혹하다 3rd&gt;(~7.10)</li> <li>● 클래식 &lt;Draw&gt;(~7.11)</li> <li>● 2020 젊은국악 단장 제작공연 &lt;연박식&gt;(~7.11)</li> </ul>                                                                                                                                               | <b>1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Trials and Resurrections: 휘도 판 데어 베르베&gt;(~7.11)</li> <li>● 전시 &lt;왼쪽화화전: 박경률&gt;(~7.11)</li> <li>● 연극 &lt;친정엄마와 2박 3일&gt;(~7.12)</li> <li>● &lt;연극열전8&gt; 두 번째 작품 &lt;마우스피스&gt;(~9.6)</li> </ul>                                                          | <b>1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디자인은 번역이다: 스튜디오 신유&gt;(~7.12)</li> <li>● 2020 서울시향 New 실내악 시리즈III</li> </ul>                                                                                                                                                              |
| <b>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lt;강아지똥&gt;(~7.29)</li> </ul>                           | <b>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과야의 보통사람들&gt;(~7.17)</li> <li>● 말러 시리즈 &lt;교향곡 제4번&gt;</li> </ul>                                                                                                                                                                                                                                                            | <b>1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시시각(時刻)갯&gt;(~7.18)</li> <li>● 유니버설발레단 &lt;오네긴&gt;(~7.26)</li> <li>● 연극 &lt;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gt;(~8.23)</li> </ul>                                                                                                                                             | <b>1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유추프라카치아&gt;(~7.19)</li> <li>● 전시 &lt;현대 HYUNDAI 50 PART II&gt;(~7.19)</li> <li>● 전시 &lt;퓨처데이즈(Futuredays)-시간의 공간&gt;(~7.19)</li> <li>● 바리톤 김동규의 Fantastic Summer(~7.20)</li> <li>● 2020 제3회 페미니즘연극제 연극 &lt;계절을 잃은 숲&gt;(~7.21)</li> </ul> |
| <b>23</b>                                                                                                                          | <b>2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예술로 부모플러스 &lt;아트, 맘을 두드리다&gt;(~7.25)</li> <li>● 전시 &lt;홀어진 파편들: 성립&gt;(~7.24)</li> <li>● 2020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연극 &lt;2020 메갈리아의 딸들&gt;(~7.27)</li> </ul>                                                                                                                                                                          | <b>2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전개-Unfolding&gt;(~7.25)</li> <li>● 전시 &lt;달리: HAPPYNESS&gt;(~7.25)</li> <li>● 전시 &lt;매일매일 달라진다&gt;(~7.25)</li> <li>● 뮤지컬 &lt;요한계사록&gt;(~7.25)</li> </ul>                                                                                                   | <b>2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6시 퇴근&gt;(~7.26)</li> </ul>                                                                                                                                                                                                               |
| <b>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연극)선정작 사거리가 되어라 &lt;프로듀스 최하은 S2&gt;(~7.30~)</li> </ul> | <b>3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MAP(전통예술) 선정작 고래야 &lt;박수무곡&gt;(~8.1)</li> <li>● 전시 &lt;WHEN COLOR MEETS OBJECT&gt;(~7.31)</li> <li>● 전시 &lt;G9: 대중문화예술인 9인과 함께하는 지구사랑&gt;(~7.31)</li> <li>● 전시 &lt;운실 속의 노마디즘 My Toes Are Free: 노세환&gt;(~7.31)</li> <li>● 전시 &lt;서가의 풍경-책거리, 문자도&gt;(~7.31)</li> <li>● 전시 &lt;아티스트로 살아가기&gt;(~7.31)</li> </ul> |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2020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 연극 <이카이노의 눈>

일제강점기 일본 오사카의 이카이노 사람들의 삶을 다룬다. 재일한국인 작가 원수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1970년대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열전 2018! 선정작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일시 7월 2일(목)~12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6408-0403



##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 <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극한 환경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 액트리스 투(Actress-2)가 무대에 서게 된다. 70년 후, 고고학 인턴 성연수는 자료를 정리하던 중, '연극'을 발견하게 된다. 21세기 연극의 목록과 22세기 연극의 창세기가 교차하면서, 로봇의 운명은 다시 한번 연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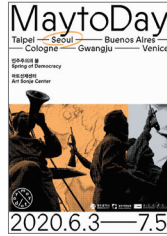
일시 ~7월 5일(일)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3789-9635



## 뮤지컬 <제이미>

<제이미>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 '제이미: 16살의 드랙퀸'에서 소개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흥행 열풍을 일으킨 뮤지컬로, 아시아 초연작이다. 드래그퀸(Drag queen: 여장을 하고 연기하는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17세 고등학생 제이미의 꿈과 도전을 그린다.

일시 7월 4일(토)~9월 11일(금)  
화~목 오후 8시 | 금 오후 3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제이미석 13만 원,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02-3485-8700



## 전시 <민주주의의 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기획한 다국적 특별전 '메이투데이'(MaytoDay)의 서울 전시다. 서울과 대만 타이베이, 독일 쾰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4개 도시에서 각국의 서사를 담아 개별적으로 전시된다. 광주 정신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조망한다.

일시 ~7월 5일(일) 오후 12시~7시(매주 월 휴관)  
장소 아트선재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733-8949



## 남산예술센터 <2020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는 한국 창작 연극의 다양한 자료를 함께 찾고 공유하기 위한 과정 공유 프로그램으로 모든 창작 전 단계, 제작 중 과정에 있는 미완의 콘텐츠들 미리 공유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총 8개의 작품이 낭독 공연, 쇼케이스, 프레젠테이션, 렉처 퍼포먼스 등 각각의 아이디어에 적합한 무대로 구성된다.

일시 7월 8일(수)~11일(토), 7월 15일(수)~18일(토)  
평일 오후 7시 30분  
\*7월 15일(수) 오후 5시 30분·6시 15분·  
7시·7시 45분·8시 30분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758-2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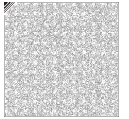


## 2020 젊은국악 단장 제작 공연 <언박싱>

<언박싱>은 탈춤의 움직임과 전통의 소리, 피지컬 시어터 장르를 더한 공연으로, 나를 둘러싼 혹은 내면에 숨겨둔 상자를 열어보고 나를 찾는 과정을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한다. 2019 젊은국악 단장 선정 아티스트 이동빈이 연출을 맡았다.

일시 7월 10일(금) 오후 8시, 11일(토) 오후 5시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2261-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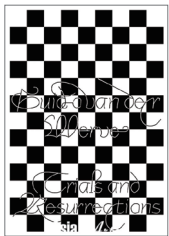


## 2020년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작

### 연극 <라스트 세션>

1939년 9월 3일, 프로이트 박사는 C.S 루이스라는, 자신을 비판한 한 작가를 초대한다. 루이스는 프로이트와 뜻밖의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두 지식인은 전쟁이라는 시대 배경, 각자 삶에 대한 슬픔과 연민으로 논쟁을 통해 삶과 인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감동을 전달한다.

**일시** 7월 10일(금)~9월 13일(일)  
화·수·금 오후 8시 | 목 오후 4시 |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2시·5시(월 공연 없음)  
**장소** 에스24 스테이지 3관  
**관람료** 전석 5만 5천 원  
**문의** 02-3672-0900



### 전시 <Trials and Resurrections:>

#### 회도 판 데어 베르베>

네덜란드 작가 회도 판 데어 베르베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인간의 야망과 그를 위한 노력의 무의미함이 드러내는 이중성을 다뤄온 작가의 지난 10여 년에 걸친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영상 작품 8편을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11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매주 일 휴관)  
**장소** 송은 아트스페이스  
**관람료** 무료  
**문의** 02-3448-0100



### 전시 <왼쪽회화전: 박경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환영을 담아내는 전형적인 회화에서 벗어나 그리기에 주목하는 '조각적 회화'를 실천하는 박경률 작가의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적 회화의 특징인 운동성과 시간성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묻는다.

**일시** ~7월 11일(토)  
화~금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매주 월 휴관)  
**장소** 두산갤러리 서울  
**관람료** 무료  
**문의** 02-708-5050



##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 <아르바이트>

연극 <아르바이트>는 자유와 지성의 상징인 대학이란 공간에서 갓 스무 살을 넘긴 대학생들이 세상과 현실에 마주하는 순간을 무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만연한 '침묵의 카르텔' 현상을 이야기한다.

**일시** 7월 15일(수)~19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02-3789-9635



## 2020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 <강아지동>

제1회 아동문학상 수상작이며 교과서에도 등장한 권정생 원작의 <강아지동>이 예술의전당이 준비한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의 첫 작품으로 공연된다. 강아지동이 민들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성장 이야기로, 2001년부터 계속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일시** 7월 16일(목)~29일(수)  
화~금·일 오전 11시·오후 3시  
토 오전 11시·오후 2시·5시(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02-580-1300



### 전시 <시시각각>

우리 옛 선조들의 남성 모자인 '갓'의 멋을 현대 작품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갓, 남성들의 머리장신구, 근대 서적 및 엽서 등 70여 점의 유물을 화가·건축가·사진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볼 수 있다.

**일시** ~7월 18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매주 월 휴관)  
**장소** 코리아나미술관 B1 c-gallery  
**관람료** 일반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02-547-9177



###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

푸시킨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원작으로, 차 이콥스키의 곡을 더한 존 크랭코의 드라마 발레 작품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이 2009년에 국내 발레단 최초로 선보여 당시 국내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여인 '타티아나'와 오만하며 자유분방한 도시 귀족 '오네긴'의 어긋난 사랑과 운명을 그렸다.

**일시** 7월 18일(토)~26일(일)  
7월 18일(토) 오후 7시 |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2시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0만 원,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070-7124-1734



### 연극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그저 버티듯 살아가는 주인공 찬란이 우연히 폐부 직전의 연극부에 속해 있는 연극부원 도래·유·시은·혁진과 함께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는다. 평균 9.97점을 기록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일시** 7월 18일(토)~8월 23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 일 오후 2시  
(매주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70-4287-0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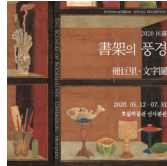


### 2020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 연극 <2020 메갈리아의 딸들>

올해로 제3회를 맞은 페미니즘 연극제는 'I am a Feminist'라는 주제로 여덟 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중 여섯 번째 작품으로 2019년 3월 상연된 <메갈리아의 딸들>의 후속작이다. '페미니즘'이라는 문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일시** 7월 24일(금)~27일(월)  
평일 8시 | 토 오후 4시·8시 | 일 오후 4시  
**장소** 1M SPACE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2069-7202



### 전시 <서가의 풍경-책거리, 문자도>

호림박물관은 2013년 <민화, 상상의 나라-민화여행>에 이어, 2020년 민화특별전의 첫 번째로 <서가(書架)의 풍경-책거리, 문자도>를 개최한다. 서가의 풍경을 그린 책거리 그림과 유교 이념을 담은 문자도가 전시된다.

**일시** ~7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매주 일 휴관)  
**장소**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관람료** 성인 8천 원, 청소년 및 장애인 5천 원  
**문의** 02-541-3523~5



### 2020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MAP(전통예술) 선정작

#### 고래야 <박수무곡>

음악그룹 고래야의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신작 공연으로, 한국 전통 장단과 박수의 만남이라는 테마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전통 장단은 박수와 결합해 보편적인 댄스 비트로 변화하고, 그 안에서 대금·거문고·장구가 만들어내는 한국의 맛이 춤을 춘다. 전통음악의 변화를 시도한 고래야의 오랜 방향을 이어가면서 사이키델릭한 밴드 사운드를 접목해 더욱 젊고 과감한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정규 4집 음반 <박수무곡>의 발매를 기념해 진행된다.

**일시** 7월 31일(금)~8월 1일(토)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5시  
**장소** CJ아지트 광흥창  
**관람료** 예매가 3만 8천 원 | 현장구매가 4만 4천 원  
**문의** 02-332-3658 | contact@planktonmusic.com

# 서치 라이트

# SEARCH W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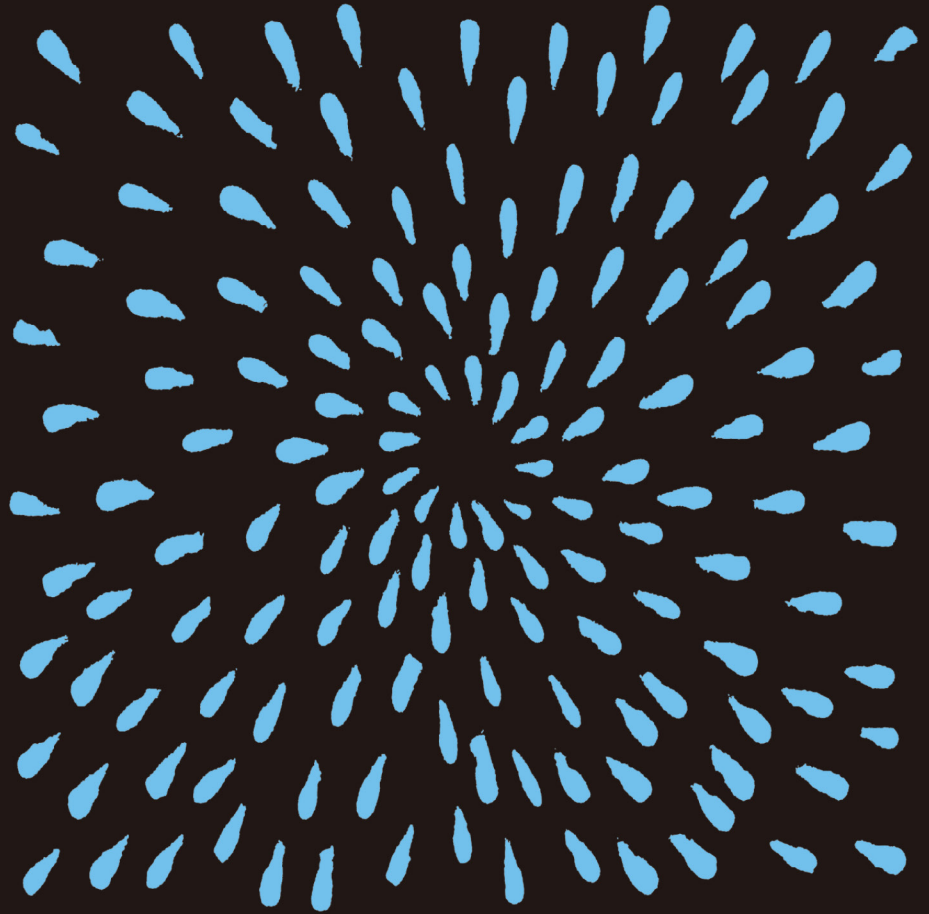
2020.  
7.8. - 18.

남산예술센터는 날로 경계가 확대되고, 무너지고, 새로이 쌓여가는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창작 연극의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 서치라이트를 밝혔다.

서치라이트(Searchwright)는 한국 창작 연극의 다양한 재료를 함께 찾고 공유하기 위한 과정 공유 프로그램이다.

서치라이트(Searchwright)는 모든 창작 전 단계, 제작 중 과정에 있는 미완의 콘텐츠들을 미리 공유해 보는, '아직·미정·미확정의 무대'이다.

서치라이트(Searchwright)는 낭독공연, 워크숍, 공개토론, 토크콘서트, 프레젠테이션, 피칭 등 각각의 아이디어에 적합한 무대로 구성된다.



## SEARCH WRIGHT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제작 **남산예술센터**

7/8 19:30 — 낭독  
**기계장치의 신**  
작 김상훈  
연출 이철희  
코너스톤

7/9 19:30 — 쇼케이스  
**@GODBLOG**  
공동재구성  
연출 박현지  
그린피그

7/10 19:30 — 쇼케이스  
**무릎을꿇었는데  
겨드랑이가따끔하여**  
작/연출 김풍년  
작당모의

7/11 19:30 — 리서치  
**미래 기념비 탐사대**  
공동창작  
창작그룹 MO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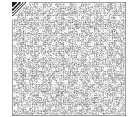
7/15 17:30 | 18:15 | 19:00  
19:45 | 20:30 — 쇼케이스  
**귀쫂긋 소셜클럽**  
공동창작  
BLANK LAB

7/16 19:30 — 랙처 퍼포먼스  
**백 년 만의 초대:  
<의붓자식>, <두 애인>**  
작 김명순 / 연출 윤사비나  
문화다방 이상한 엘리스

7/17 19:30 — 리서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 파업 -**  
작/연출 원지영  
원의 안과 박

7/18 19:30 — 쇼케이스  
**망할 극장**  
구성/연출 강훈구  
공놀이클럽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http://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6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재단 1층에 비치된 것을 가져와 읽었습니다.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인터뷰. 그의 음악 인생이 인상 깊었습니다.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코로나로 공연, 전시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책으로나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 좋습니다. 종이 매체가 주는 편안함이 이렇게 반가를 때도 있네요.

\*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agazine](http://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독자 엽서

김병준 님(서울시 동작구)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재단 1층에 비치된 것을 가져와 읽었습니다.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인터뷰. 그의 음악 인생이 인상 깊었습니다.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코로나로 공연, 전시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책으로나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 좋습니다.  
종이 매체가 주는 편안함이 이렇게 반가를 때도 있네요.

## 편집 후기

무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올 여름도 잘 지나가길.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은정샘 결혼 축하드려요!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모두가 말했지만

이토록 빠르고 무섭게 느껴질 줄 알았을까요.

이달에도 공들여 담은 모든 예술가의 오늘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기를.

김태희 객원 편집위원

2020년의 남은 반 시간, 건강하고 무탈하길 바라봅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여러모로 감사하고 행복한 6월이었습니다.

전은정 객원 기자

##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협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카메라로  
촬영해보세요

#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방문 절차>

### 1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 추후 네이버 외 PASS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